

수지꿈 이야기

2021년 vol. _ 5



- 들여다 보면 훌쩍 반해버릴 수지꿈 중등 이야기
- 감사함을 되새긴 2021 걷기여행
- What's 수지꿈 목요멘토링?
- 수지꿈에서 우리 가족은 성장중
- 시간에 맞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꿈 수지꿈

2021년을 지내며...

10년을 훌쩍 넘기고도 굳건히 고기동에 터 잡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행복한 자유인들이 저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사 와 아이들의 웃음이 항상 피어나고 그 웃음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하는 행복 바이러스가 넘쳐납니다. 이런 괜찮은 교육공동체에서 함께 꿈꾸고 나누면서 앞으로 10년을 더 훌쩍 넘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같이 다져봐요. 생각만으로도 흐뭇해집니다.

2021. 10. 07 여경샘

코로나19가 세계를 뒤덮은 후, 우리는 코로나 전과 후 세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주변이 정말 빠르게 변화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처럼 급박하게 세상을 뒤바꿔 놓은 것은 없었던 듯 합니다. 수지꿈 식구들도 발빠르게(?) 잘 적응중 이신거죠?

이번 학기를 돌아보며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의 최대 장점인 '함께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공간,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함께하면서'의 주된 방식이었다면 코로나는 우리를 소그룹으로, 비대면으로, 짧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방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극복이 아닌 '위드코로나'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지꿈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어떻게 '위드코로나'를 맞이할까요?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수지꿈 가족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험을 나누고 수지꿈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버티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뒤마의 소설 삼총사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All for One, One for All'로 마지막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021. 10. 07 학부모 대표 부영이

STUDENT CONTENTS

[HOT ISSUE _ 중등이야기]

- 여경샘에게 듣다, 이야기 중등史 _003
- 이보다 좋을순 없다 공기반 소리반 _005
- 어서와 '무인'은 처음이지? _008
- What's 수지꿈 목요멘토링? _010
- 2021년 걷기여행 _012
- 수지꿈 환경박람회 _016
- 혜성이에게 듣는 중등생활 이야기 _018
- 중등TFT는 현재 진행중 _019

[우리들 이야기]

- 전국~우리반 자랑 _020
- 사진으로 본 아이들의 학교생활 _030
- 일간 방과 후 _034

[그들이 알고싶다]

- 2021년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_038
- 해돋이 선생님을 알고 싶어요 _042
- 수지꿈 찐 덕후 팬더 _044

[부모와 함께 꿈꾸는 수지꿈]

- 꽃가마 타고 입학한 수지꿈, 그 곳에서 우리 가족은 성장중 _046
- 우리 가족은 소중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_048
- 익숙해질 듯 아직도 어색한 줌 회의 _050
- 시간에 맞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꿈 수지꿈학교 _052
- 교육소위는 달려갑니다 _054
- 신입엄마들의 에너지로 만든 방학돌봄교실 _056
- 수지꿈 밥상 이야기 _058
- 21년 연대이야기 _059
- 소모임 이야기 _060

편집후기

들여다 보면 훌쩍 반해버릴 수지꿈 중등 이야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줄 알고 서로에게 배우면서도 각자가 본인만의 개성대로 빛나는 아이들이 모인 수지꿈 중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14년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던 중등의 시간, 그 시간을 함께 해온 여경쌤과 함께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시간들을 찬찬히 훑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중등의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배움의 시간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참 잘 자라준 '중등'입니다.



여경쌤에게 듣다 이야기 중등史

글_종이

초등과정 만으로는 몸집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기에 중등과정을 만들어 내부 졸업생들의 진학과 동시에 외부 인원도 입학하여 규모가 좀 더 커지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들로 인해 중등을 꿈꾸게 되었고 2013년 6학년 부모님들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중등을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지꿈 중등의 시작은 그 당시 부모님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빨리 실현 가능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지꿈학교 중등은 2014년 6명의 졸업생 중 4명이 7학년에 진학하게 되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수지꿈 중등은 어떻게 시작 되었나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은 초등과정 졸업 후 대안 중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수지꿈에도 중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무르익던 중이었습니다.

중등을 바랐던 마음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초등 6년 과정으로는 수지꿈학교의 철학을 깊이 있게 구현하기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중등 과정까지는 있어야 수지꿈이 추구하는 철학을 펼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둘째, 대안 초등과정 졸업 후에 진학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일반학교로의 진학 보다는 대안 중학교 진학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었고, 대안중학교를 찾다 보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중등부터 기숙학교를 보내기에는 아직 무리일수 있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비 기숙학교를 찾았지만 가까운 곳이 없어 통학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때 보다도 중등이 절실 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수지꿈학교의 몸집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중등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방향이나 철학은?

제가 생각하는 중등 교육과정의 핵심은 독서와 진로입니다. 독서가 바탕이 되어야만 인문학과 철학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이 프로젝트 수업까지 이어지는 바탕이 됩니다. 중등이 출발할 때 독서를 하나의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보았으며 수업시간 안에 독서를 넣은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진로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지꿈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 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진로의 교육과정은 대부분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자연스럽게 진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등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 활동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세부적으로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보다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 공교육에서 진행되는 일방향적인 교육에서 얻는 것보다 너른 배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활동이 보다 깊이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독서와 지식적인 배움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학교 월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BTS가 막 뜨기 시작할 때였는데 아이들이 BTS의 대단한 팬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은 수업시간 필요할 때만 허용을 했는데, 그날은 아이들이 BTS의 노래 순위를 올려주고 싶어 계속 휴대폰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담임으로써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주의를 주었고 그 서운함에 학교 중간에 모두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날에 아무일 없다는 듯 모두 학교에 나왔지만요. 잔소리를 조금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월담을 감행할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싶어 대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1위가 된 BTS를 볼 때마다 몇 년 전 아이들의 월담 사건을 웃으며 추억해 봅니다. 그때의 아이들도 BTS처럼 많이 성장해 있었지요? 보고 싶다 애들아!

중등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마디

중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좀더 깊이 있게 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을 혼자만 하는게 아니고 교육 과정 속에서 녹여내며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 중등의 역할입니다. 수지꿈 중등에서는

교육 과정속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깊게 알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과 과목에서 얻는 지식적인 부분 뿐 아니라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 외부로의 체험 활동,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한 실제적인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소통, 더 나아가 전체 사회로까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지꿈에서 초등과정을 마치고 중등과정까지 경험을 한다면 아이들은 어떠한 세상속에서도,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 입니다.

수지꿈에서 꿈꾸어 보고 싶으신 것은?

수지꿈에 고등과정까지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안 중등과정 까지만 하고 졸업하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초, 중에서 경험한 것들을 고등과정에서 더 제대로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 과정까지 인원이 적게 시작하더라도 12년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수지꿈이 12년 동안 아이들에게 좋은 배움터가 되어 줄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꿈



수지꿈 중등의 영광스러운 회 졸업생

이보다 좋을순 없다 공기반 소리반

공~소반~ 모여라~~~!
공기반소리반은 두 개의 교실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반이에요! 수업과 활동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생활한답니다. ‘공기’교실에서는 지나샘과 함께하는 영어, 말과 글, 프로젝트 수업이, ‘소리’교실에서는 상큼발랄 하나샘♥과 함께하는 예술, 수학, 과학 수업이 이루어져요~~



다 같이 모여서 토론이나 공부를 한다! 하면 공기반(프로젝트교실)을, 편하게 누워서 놀어지고 싶다면 수제침대 루몬스가 있는 소리반(휴게교실)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수지꿈생활을 가~장 오래한 고참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 마음은 여유롭고 느긋~하면서도 머리와 가슴, 손, 발, 입은 실 틈 없이 바쁜 교실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단합이 최고!!!

그 단합력으로 한해동안 기후 행동 부스, 무인 매점 운영, 학교 정자 만들기, 걷기 여행, 다양한 챌린지들을 해냈죠! 돌이켜보니 짧은 시간동안 추억이 정말 많네요... 아이들이 단합해서 준비한 스승의 날 깜짝파티는 잊을 수 없는 추억~! 거의 프로포즈를 받았답니다.



공기반 소리반 (6, 7, 8, 9학년) 지나, 하나

세연 _ 우리 공소반은요 에너지가 넘치고요! 행복해요. 서로서로 너무 잘해줘요. 행복한 공소반입니다.

루빈 _ 이번에 6학년이 되어서 공소반에 왔는데. 너무 재미있다. 가만히 있을 새가 없다. 수업때도 웃고, 쉬는 시간에도 웃고. 여기 와서 참 많이 웃었다. 수다를 많이 떨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낸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놀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더 웃어보겠다!!!!

희주 _ 시끌벅적하고 재밌다.

윤재 _ 시끌벅적하고 선생님들과 수업이 너무 재밌다. 친구들끼리 잘 지내서 좋다.



솔빈 _ 우리 공기반소리반은 중등이고요.. 시끌벅적하고 재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놀러는 못가도 학교에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초등때랑은 많이 다릅니다. 더 편해지고 있어요 2층이어서 풍경도 좋아요. 정신은 없지만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민세 _ 우리 공기반소리반은 흥미롭고 심오하고 재밌고 이상하고.... 좋아요!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죠??

수연 _ 친구가 많고 시끄럽고 재밌다! 또 반이 2개여서 좋다! 쌤도 좋다!



제은 _ 공소반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매일매일 시끄럽고 재밌죠. 지금도 공이 머리 위로 날아다녀요. 초등 때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엄청 재밌어요! 수업시간도 쉬는 시간도. 쌤들 그림 보고도 자지러지게 웃고. 친구들 흑역사 말하면서 또 웃고. 그러면서 또 계속 싸우고 모여앉아서 수다도 떨고! 코로나만 아니면 더 재미있었을 거예요!

성민 _ 산만하다.. 반이 두 개여서 좋다!

서준 _ 시끄럽고 흥이 넘친다. 무지 재밌다!!



환희 _ 우리 공기반소리반은요... 친구들이 다 시끄럽고요 선생님들이 재밌는 수업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잘 어울려 놀아요.

정우 _ 반이 두 개여서 양쪽 다 시끌벅적하고 수업도 재밌다. 애들 모두 말하는 걸 좋아해요.

혜성 _ 우리반은 수업에 대한 참여도도 높고 남녀노소(?) 모두 잘 어울려 지낸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친해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갈등이 없다!

은조 _ 공소반 흥이 많다! 선생님들이 좋다! 산만하다! 일본어에 재능을 보임.(내 자랑)

윤 _ 우리 공기반소리반은 항상 시끌벅적하고요. 애들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항상 쌤들이 재밌는 수업도 해주세요! 비록 애들은 정신없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 항상 활기 넘치는 공소반 놀러오세요~~~

가인 _ 우리 공소반은 재미있는 수업도 하고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는 행복한 공소반입니다!

하나 _ 우리 공기반소리반은 많지 않은 인원이 초등부터 중등까지 오랜 세월을 더 가까워서 함께 한 만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줄 알고 서로에게 배우면서도 각자가 본인만의 개성대로 빛납니다.

공소반 자랑, 내 자랑

지나 _ 위의 16명 이름들이 우리반이 좋은 가장 첫 번째 이유~!!!. 이 존재들 덕분에 '행복'을 진심으로 느끼며 살아가서 아이들에게 고마워요. 다 큰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자기 고민 얘기할 때, 지나 뭐해요~하며 와서 기대고 먼저 안아줄 때, 괜히 몽클~해지면서 모든 힘듦이 싹 내려가는 그 기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막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남은 시간에는 무슨 일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도 공소반은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느라 요즘 머리가 아주~바쁘답니다. 공부한 것으로 우리의 손과 발은 또 무엇을 해볼지... 아직 저도 몰라요~

다시는 오지 않아 그리울 이 시간~ 평생 안고 살 추억이 될 16명의 2021년~ 한 해 마무리까지 즐겁게, 열심히, 행복하게 지내자 애들아! 사랑한다♥

공기반소리반 프로젝트 '무인은 처음이지?'

글_느긋

2020년 중등의 야심만만 프로젝트 '뉴트로마켓'을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완판의 신화를 기록하며 하룻길을 들쭉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뉴트로마켓 말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올해는 무인매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시국에 걸맞는 비대면 무인매점 프로젝트 '무인은 처음이지?'의 시작을 추억해 봅니다.

뉴트로마켓 기획 단계부터 수익금으로 무인매점을 운영해 볼 '큰 그림'은 이미 그리고 시작하였던 터였습니다. 뉴트로마켓의 수익금에 기부금을 더 하여 냉장고와 간식을 구매할 예정이었으며 4차에 걸친 뉴트로마켓의 대성공으로 무사히 '무인매점'을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무인은 처음이지?' 무인매점의 시작입니다.

무인매점을 개업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트로마켓을 통해 자본 확보 후 잠재적 매점 고객님들(고맙구나, 초

등 동생들아)의 수요 조사 및 매점 운영 방식 논의를 거듭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들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생협 간식과 동아리 활동에서 만들게 되는 수제 간식, 그리고 부모님들의 수요에 맞춘 텃밭작물을 주요 판매 물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즘 자주 눈에 띄는 샵인샵의 개념을 차용하여 비누, 향초, 립밤, 액세서리, 수세미 등 직접 만든 공예품을 함께 팔고 그 수익금을 '무인매점'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의 열개를 짜고 무인매점을 책임져줄 '냉장고'를 구입하였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갈 물품들을 차근차근 구입하고, 운영을 담당할 사람을 정하고,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픈 전에 미리 운영 규칙도 꼼꼼히 점검 하였습니다.

대망의 냉장고가 들어오던 날, 그동안 흘렸던 피와 땀과 수고와 정성과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우리의 애써왔던 순간들이 기억되



길 바라는 마음에서 손바닥 도장을 냉장고에 황광 찍었습니다. 비록 손바닥 도장은 찰나의 순간만 냉장고에 찍히고 사라져버렸지만 우리들의 마음엔 영겁의 시간만큼 남아있습니다.

비대면 운영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재고를 파악하거나, 수요를 예측하여 다시 물품을 주문하는 일, 물건을 정리하거나, 비용을 정산하는 것, 매점 운영 규칙을 학교 전체와 공유하고 재정비하는 것 등 생각보다 많은 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쌓여가는 수익금과 수익금을 통해 우리가 꾸는 꿈이 이루어 질 날을 기대하며 '무인은 처음이지?'운영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입니다. 그동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밟고 싶을 수 있는 야외휴게 공간인 나무 정자를 지었고, 학교 후 집 도착까지 꼬르륵 거리는 배를 달래주기 위해 매점을 지은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꿈 말입니다. 아직은 수익금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지는 고민 중입니다. 열린 결말이기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

'어서와 무인은 처음이지?' 이용 수칙

1. 매점문은 청소와 하루 마무리가 모두 끝난 **학교 시간**에 열립니다.
2. **음식은 학교 밖에 나가서 먹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 안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3. 양심계산대에 돈을 넣고 물건을 가져가면 됩니다. 거스름돈이 필요한 경우 금고 옆의 거스름돈 장부에 이름과 금액을 기입해둡니다.
4. 무인매점은 **외상이 없습니다.**
5.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정산담당 이 거스름돈을 전달합니다.
6. 무인매점 이용은 **개인용돈**으로 하며, 돈을 **빌려주거나 사주지 않습니다.** 돈을 놓고와서 못 사는 경우 다음에 개인 돈을 가져와서 삽니다.
7. 과소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용돈 범위 안에서 적절한 소비**를 하는 연습을 합니다.

What's 수지꿈 목요멘토링?

'삶'과 닮아 있는 '삶'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분들의 삶과 경험을 공유하는 고학년 멘토링 수업을 오픈하였다. 멘토링 수업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지나섬을 만나 보았다. 글_올챙이

mentoring 멘토링[명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활동.

멘토링을 시작한 계기는?

처음 시작은 중등의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작년에 계획했던 것들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학교 내에서 해볼 수 있는 예/체/진로 수업(졸업생/맛단지생 요리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전문 분야의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관심도와 집중도가 달랐어요. 또한 내용을 떠나 새로운 만남 자체가 아이들에게 주는 신선함과 재미가 충분히 가치 있고, 개인의 주제발견 기회도 된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학기 멘토링 수업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멘토링 수업 시간은 아이들에게 누가 오는지,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지 예상이 안되는 수업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이 아니라 깊게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주제를 접해보는게 좋았어요. 아이들이 개인프로젝트 진행 시 주제 발견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전문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부모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횡수가 더 늘어나면 전문성을 가진 활동부터 삶을 먼저 살아본 어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접해 볼 수 있는 맥락에서 채워지는 부분도 함께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멘토링 수업의 방향은?

주제 안에서 활동으로 이어가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한 아이들의 경험을 쌓는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멘토링에서 우연히 만난 주제에 아이들이 더 깊게 흠뻑 빠지고 싶어한다면, 그 주제가 프로젝트 수업이나 개인프로젝트로 확장하고 심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개인적인 실제 경험이 함께 이야기되었을 때 더 깊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이런 것을 함께 나눠 줄 어른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베이킹 수업을 진행하였던 수지꿈 졸업생 심진솔 수업 후 소감

수지꿈을 졸업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온 후 애들과 무엇을 만들어본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기에 떨리기도하고 설렜다. 고학년들을 상대로 내가 무엇을 가르친다는게 생각보다 떨렸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이어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1때 놀아줬던 애들이 너무 커서 놀라기도 했다. 케이크 만들기전에 역할 분담을 하고 해야할 일을 주었다. 애들도 잘해주고 잘 따라주었다. 원래 이렇게 착했구나라는 생각도했다. 은근 뿌듯하기도 했다. 수지꿈학교 학생답게 뒷정리도 빨리 끝내고 너무너무 고맙웠다. 나에게도 좋은 기회였고 소중한 시간이었던거 같다.

수업 소감과 앞으로 하실분들께 조언한다면

▶해바라기_ 일반학교에서 하던 뻘한(?) 평범한 수업을 하려다가 실패했다.수지꿈 중등 아이들은 일반학교 아이들과 달랐다.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자랄 수 있구나. 많은 준비를 못해서 미안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보리_ 그다지 흥미로운 내용도 아닌 환경 다큐멘터리를 집중해서 함께 봤던 분위기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 영화를 본 이후 머내 영화제 때 촬영한 영상에서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며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겠다는 자세가 역시 배운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수업은 준비해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만 수지꿈 멘토링은 배우는 게 더 많다. 무엇이든 배울 열린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

▶제인_ 아직 저학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수지꿈에서 자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개인적으로도 좋았다. 아이들의 자유로움, 주눅들여 있지 않는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 전에 아이들과 그 분야에 대해 얘기 나누고 방향, 주제 등을 잡고 준비를 하면 좋을 듯 하다. 그러면 아이들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말레_ 수업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을 편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푸른나비_ 무사히 4주를 해낸 저와 들어준 아이들에게 감사. 우리 애들이 그래도 매너가 좋아요. 일단은 잘 들어 줍니다. (물론 2~3명정도 곤란을 안겨주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 자신감 있게도 전하세요!!

과 경험을 가진 어른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시간을 갖으며 어떠한 결과가 당장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스치듯 들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스며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링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 ▶통번역가 외국어 기초 수업, 통/번역사 직업 소개(말레)
- ▶디자인 진로 디자인 분야, 직업, 방향 (제인)
- ▶디지털 리터러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잊혀질 권리, 스마트 기기를 지키는 방법 등 (네로)
- ▶그림책 수업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기 (해바라기)
- ▶성(性)이야기 (푸른나비)
- ▶글쓰기 “내 쓰 내 보 글”

멘토링은 계속 이어가나요?

지원해 주시는 분들만 계속 주신다면 맥을 이어가고 싶어요. 수업이라는 것이 부모님들께 너무 큰 짐을 지어드린게 아닐까 죄송스러운데요, 꼭 가르치는 것이 아니어도 되고 아이들과 눈맞추며 이야기 나누어 주시는 시간도 너무 좋아요. 부담을 조금만 낮추어도 되니 마음 편하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이나 전문분야도 좋지만 개인의 관심 분야나 주제, 취미. 그 모~든 분야를 대환영합니다. 지원 분야, 주제가 겹쳐도 괜찮아요! 똑같은 주제여도 전달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중심 포인트가 달라서,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멘토링수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꿈



당연하게만 느꼈던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되새기다 2021년 걷기여행

2021년 고학년 걷기여행은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가게 된 걷기여행이다. 올해 걷기여행은 강릉 14개 구간의 바우길 중 약 60km가량의 4개 구간을 걸었다. 여행을 통해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아울러 환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피켓을 들고 해안가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실태를 인식하고, 해양오염의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여행 시작 전, 전원 PCR검사, 체력훈련, 그리고 일주일 간의 지역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야 시작된 걷기여행이었다. 고된 일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넘치게 풍족한 삶을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지구를 아끼는 마음을 되새기게 된 고학년들의 4박 5일간의 걷기여행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리_고길동

여행 1일차 22km 완주

철저한 준비 끝에 설레는 마음으로 드디어 출발!
걷기여행의 큰 의미 중 하나인 바다.
그리고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첫 숙소 도착



여행 2일차 19.97km, 이상 무



예정된 걷기코스는 15km지만, 지름길 없이 우직하게 출발지와 종점지를 꼬박 지켜 걸으니 20km 가까이 걷게 되었다.
일정을 마치고 주저앉아 좀처럼 숙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다 결국 부모님들이 주신 비장의 카드 치킨 배달 덕에 숙소로 한달음에~
오늘 하루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고마웠던 점을 나누는 하루 마무리 시간도 소중한 시간.



여행3일차 15.4km, 가장 쉬운데 가장 힘든 날



3일차 코스 난이도는 가장 낮는데도 가장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다더니 바다에 도착하자 신나는 아이들.

“반명 걸을 땀 발에 불난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저녁 먹고
바다에서 놀고 나니까
발은 아픈데 오늘 힘들었나 싶고
그런 기억이 안 나.”

‘용기내 챌린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다’, ‘쓰레기로 죽어가는 해양동물들을 지켜주세요.’ 같은 깃발들을 달고 걷다보니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실수로 떨어트린 사탕 껍데기가 바람에 날려가도 아픈 발로 달려가 주워오게 된다.



집으로 가는길

선생님, 친구들과 4박 5일 간 식구로 지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아이들. 그리고 추억을 가득 안고 녹초가 되어버린 아이들. 이제 집에 가자!!!

걷게 되면 알게 된다. 고마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이다. 나를 걷게 해준 튼튼한 두 다리가 고맙고, 잘 걷게 살아주신 엄마 아버지가 고맙고, 걸걸 묵묵히 걸반이 되어준 나무들도, 옆에서 함께 걷는 친구들도 고맙다. 걷는 일이란 새삼스러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걷기여행 돌아보기 중-



여행 4일차 17km, 우비 입고 길에서 밥 먹어 봤어?



마지막 날 여행 4일차. 걷기여행의 환경프로젝트 활동인 해안가 쓰레기 줍기를 하는 날. 그런데 비바람 예보가 있어 안 오기를 기도했지만 무심하게도 도시락을 먹으려 바닥에 앉자 곧 떨어지는 빗방울.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부는 바람과 추위에 맞서 걷고 걷고 걸어 드디어 종점에 도착.

숙소에 들어가 뜨끈히 배를 채운 후, 환경 프로젝트로 계획한 해안가 쓰레기 줍기!

여행 마지막 밤을 장식한 불꽃파티





배움을 잇다 수지꿈 환경박람회

공기반 소리반에서 진행된 환경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환경부스가 만들어졌다. 중등에서 초등으로, 배움을 이어가는 뜨거웠던 결실의 현장을 들여다 보자 글, 정리 _ 느긋



어느날 학교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중등 공기반 김세연 학생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다음 주 금요일 재미있는 부스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죠. 어떤 부스냐고요? 바로 환경 부스입니다. 중등이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예요. 그럼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학기 초반부터 '기후위기' '동물권'등의 주제로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비건이라는 주제도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공부한 환경자료들로 재미있고 쉬운 '기후 행동설명서'를 만들었어요. 비건 음식을 판매해서 동생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해 알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등 한 학기 결과물이라도 볼 수도 있겠네요. 부스는 '분리 수거를 제대로 하자', '페이스 페인팅', '업사이클 팔찌', '비건 음식 판매 (두부떡강정,통밀스틱 쿠키)', '환경자료 전시' 로 구성 되어있어요. [출처 _ 네이버카페 수지꿈학교 2021. 07.04. 20:35]



'인류세'를 살고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어른들보다도 먼저 시대의 과제에 눈을 돌려주었구나. 마스크를 쓰고 지낸 우리의 지난한 시간들은 자연을 대상화 시킨 어른들의 탐욕스러운 시간들로부터 돌아온 부메랑이 아닌가 싶어 미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차였어. 기후 위기, 온실 효과, 오존층 파괴, 열대림 파괴, 사막화, 해수면 상승, 해양 생태계 오염.. 끝도 없이 꿈꿀 수 있는 이 시대의 폭력에 눈을 들어 마주한 너희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 정도 짜йма' 하면서 누리던 나의 일상이 생태계와 인류의 미래에 거대한 재앙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 이를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던 나에게 너희들의 환경 프로젝트는 하나의 '느낌표'가 되어 주었다. 긴 지구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 '인류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다 나은, 보다 괜찮은 인류로서 지구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자꾸나. 그 첫 걸음을 내딛은 너희들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삶 속에 오롯이 새겨졌을 배움이 너희 삶에 가치와 기준이 되어주길 바라며. - 2021.10. 02 느긋

환경프로젝트를 마치며...

성민_ 환경문제로 인한 고통은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먼저 옵니다. **희주_** 분리수거를 하던 날 산처럼 쌓여있던 쓰레기를 보고 배달주문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가게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은조_** 물건을 살 때 지구를 해칠 수 있는 일회용품인지 생각하고 구매하게 되었고, 수업 중 본 '씨스프리시'를 보고 어업이 해양오염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연_**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쓰레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 기후위물어보는 것이 아닌 내가 남에게 알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_**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보다도 고기 남획을 하는 것이 바다에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희_** 음식포장 갈 때 용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용기내 챌린지 많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제은_** 더러워진 세상이 아니라 곧 사라져버릴 세상으로 보이게 된 후로 환경 수업에 더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루빈_**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좁게 되었고, 택배 포장재가 너무 과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세_**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은조_** 물건을 살 때 지구를 해칠 수 있는 일회용품인지 생각하고 구매하게 되었고, 수업 중 본 '씨스프리시'를 보고 어업이 해양오염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연_**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쓰레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 기후위물어보는 것이 아닌 내가 남에게 알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_**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보다도 고기 남획을 하는 것이 바다에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희_** 음식포장 갈 때 용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용기내 챌린지 많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제은_** 더러워진 세상이 아니라 곧 사라져버릴 세상으로 보이게 된 후로 환경 수업에 더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루빈_**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좁게 되었고, 택배 포장재가 너무 과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세_**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연_** 일회용 용기사용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버려진 쓰레기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되었어요.

수지꿈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혜성에게 듣는 중등생활 이야기

정리_소머즈



못 해봤을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특히 걷기여행은 몸이 무거운 만큼 마음은 가벼워 진다. 그때 친구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친구들과 친해지는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

프로젝트 수업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은? 이유는?

내가 입학하고 부터 '환경 프로젝트'를 많이 했다. 그 중에서 2021년 1학기 때가 가장 무언가를 많이 했다. 환경부스를 만들어서 리플렛을 제작하고, 비건식을 판매하고 리사이클링 공예를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를 배워서 동생들에게 알려 줬던게 가장 재미있었다. 또 가장 배움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수지꿈 다니면서 아쉬웠던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꿈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위에서도 말했듯 여행에서 얻는 것이 많은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부터는 여행을 많이 못 갔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 둔 것도 아쉬웠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여행 갈 상황이 되는 것 같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외부활동이 아닌 학교에서 하는 활동도 재미있으니까 입학할 해도 후회가 없는 학교이다.

동생들에게 한마디?

수지꿈 동생들아. 지금처럼 밝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즐기렴. 이 순간 순간이 보물 같은 시간이라네. 수지꿈에 입학 할 동생들아. 우리 학교에 처음 와도 어렵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와도 되고 그냥 마음껏 즐기고 배우면서 다니면 돼. 잘 지낼 수 있을거야! 꿈

처음 수지꿈 중등을 입학할때 왜 오고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좋았는지?

처음에는 일반학교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대안학교라는 것을 추천 해 주셨다. 그 중에서 '수지꿈'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지원서를 쓰고 체험을 했는데 '대안학교를 선택하기를 잘 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입학하고 보니 모든 것이 좋았다.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여행도 좋았고, 프로젝트 수업도 좋았다.

졸업하는 소감은? 앞으로의 진로는?

전에 선배들이 졸업 프로젝트를 하고, 졸업여행 가는 것이 부러웠다. 그런데 올해는 졸업 프로젝트를 못 하게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졸업 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 할 것 같다. 그렇게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다. 중등 과정에는 목공수업이 있다.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를 하고 싶었는데 목공의 매력 덕분에 '반려동물 가구디자이너' 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앞으로 이러한 것과 관련 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수지꿈에서 중등을 다니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수지꿈학교에서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는 것을 물어본다면 모두 여행이라고 할 것이다. 직접 계획하는 것 부터 여행을 기록하는 것 까지 일반학교에 다녔으면

중등과정의 튼튼한 성장을 꿈꾸는 중등TFT는 현재 진행중

글_부영이



'1)부모들간 고민의 간극을 좁히고, 2)앞서 언급한 여러 내외부 요인을 감안한 중등의 지향점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 3)전체 부모 및 선생님들과 맞춰가는' 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난 2회에 걸친 중등 TFT 회의와 중간 논의과정은 부모 각자 고민의 수준을 드러내는 정도의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등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수업의 형태와 내용, 교사, 부모들의 생각, 재정여건, 초등과의 관계 등)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었고, 그 평

2020년 10월에 처음 시작된 중등 TFT 구성과 중등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초등 재학생 중 중등진학이 점차 줄고 있다는 위기감에 시작은 되었지만, 영구터전이 조성된 이후 중등을 좀 더 튼튼히 가져가고자 하는 부모들의 의지가 반영된 시작이기도 했다. 수지꿈이 초중등 9년제가 되기 전(2018년 이전)에 입학한 가정에서는 중등과정의 선택이 필수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막상 중등에 가게 될 아이들이 중등진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수지꿈 중등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중등 아이들과의 상담이나, 부모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중등을 가지 않는 다양한 이유들 - "다양한 친구를 사귄 수 없다", "학업이 뒤쳐 질 것 같다", "학교가 더이상 재미가 없다(수업이나 친구들이)"- 과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학교 선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했지만, 그 이유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정말 우리 안에 없는 것일까? 우리의 모든 모임이나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듯이, 중등에 대한 고민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아이들의 결과와는 별개로 중등의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변화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다. 10월의 첫 모임이 끝나고 TFT 의장이었던 네로가 세 가지 정도로 중등 TFT의 역할을 정의해 주셨는데,

가의 틀을 마련하는 것조차 참여했던 부모들의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다면 중등과정을 위한 TFT는 멈춘 것일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지금은 「관찰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등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되어서 고민을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등의 미래를 고민할 때, 그 고려점이 기존 시스템의 한계점들을 찾아내서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해오던 것을 안착하고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할 시점인지를 지속적으로 학생과 교사, 부모가 소통하고 살펴보는 시간인 것이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 때 형태는 180도 바뀌지만 번데기라는 외부 보호막 안에서 최종적인 자기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갖는다. 물론 번데기의 시간을 버티는 동안 주변 환경이 생존 자체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번데기의 형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비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번데기라는 외부형태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중등 TFT는 우리 아이들이 중등과정을 통해 어떻게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등 TFT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꿈

전국~우리반 자랑

해마다 3월이면 어떤 반이 생겼는지 궁금하다. **각양각색의 반이름** 후보들을 거쳐 마침내 **각 반의 이름들이 정해졌다.** 개성만점 **각 반들을 살짝 들여다 보자.** 정리_소머즈



여러아! 통나무반 자랑 좀 해봐!

- 준후 _ 히히!
- 여울 _ 헤헛!
- 상현 _ 1학년 친구들만 모여 있어 좋아요
- 수아 _ 통나무처럼 힘이 세요.
- 현오 _ 잘 놀아요.
- 유원 _ 곤충을 잘 잡아요.
- 유빈 _ 공부를 열심히 해요.
- 호연 _ 히히!
- 건태 _ 헤헤!
- 봄 _ 잘 놀아요.
- 하람 _ 잘 놀아요.
- 송하 _ 으윽!

통나무반 (1학년) _ 채송화

‘우리 반’을 나타내는 말을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여러 말들 가운데서 “통나무”에 손을 제일 많이 든 이유가 있겠지요. 순한 식물성의 이름이라 골랐을지도 몰라요. 통나무가 주는 심과 놀이의 느낌이 좋았을까요? 그냥

통통 튀는 낱말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끼와 먼지와 버섯과 작은 곤충들이 통나무에 살아요. 조금씩 자리를 만들고 내어 주며 서로의 삶을 가꾸듯, 우리 통나무반도 조금씩 ‘통’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입으로 말하긴 뭣하지만 잘 하는 게 또 있어요. 사실 현오는 출석을 멋지게 부르려고요, 유원은 바닥을 깔끔하게 쓸 줄 알고요, 하람이는 그 위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내요. 상현이는 창틀의 먼지를 싸그리 없애버리고요. 여울이는 책들을 반듯하게 정리해요. 유빈이는 친구들이 흘린 물건을 찾아주고요. 준후는 신발을 일렬로 정리해요. 그리고 송하는 다친 친구의 상처

를 치료해 줘요. 호연이는 칠판을 깔끔하게 준비하고요. 건태는 준비물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수아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제대로 버릴 줄도 알아요. 그리고 봄이는 봄처럼 따뜻하게 친구를 돌봐요. 우리는 아직 서툴지만 노력하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로 자라고 있어요. 통나무반에 놀러 오면 특별히 잘 놀아줄게요.^^



우리는 '통'하는 사이

놀고 놀고 또 놀아도 더 놀고 싶은 생명력, 이것이 통나무반의 특징이에요. 보드 게임을 하고 올챙이를 세고, 한 발 두 발 세 발 뛰기를 하면서 수학을 알아가요. 싸우고 화해하고 부탁하면서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하는 법을 연습해요. 산딸기를 따먹고 상추를 고라니와 나누고, 닭에게 먹일 메뚜기와 방아깨비를 잡으면서 자연의 이치와 선물을 깨닫지요.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공부하자고 모이자 하면 더 놀고 싶다고 소리를 쳐요. 왜 공부 시간은 40분이냐고 쉬는 시간은 10분이냐고 따져요. 주어진 환경에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기특한 아이들이지요. 선생

님 채송화도 그게 궁금하다고 맞장구를 쳐요. 채송화도 25분 공부하고 25분 놀면 참 좋겠다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려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기에 미리 정리한 지식을 배워두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해 주어요. 1학년 정도 되면 40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공부시간을 그렇게 정한 것 같다고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자기 메뚜기와 방아깨비를 잡는 50분, 1시간도 집중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해요. 저는 못 믿겠다고 여깃장을 놓지요. 아이들은 할 수 있다고 더 큰 소리를 치지요. 그러냐고 진짜인지 어디 한 번 보자면서 책을 펼친답니다. 그렇게 또 한 순간을 놀듯이 집중하기도 해요. 그런 우리 아이들을 잠자리와 나비와 닭들이 신기한 듯 바라본답니다.

행운반 (2학년) _여경쌤

이름 그대로 행운이 가득한 반입니다. 우리가 수지꿈에서 같은 반으로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행운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수지꿈 모든 학생과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에 끌려서 나온 이름입니다. 물론 그 많은 행운들 중에서 조여경쌤과 함께 같은 반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네요.



우리 반 하루살이

- ▶ 지각없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해요.
- ▶ 10분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고 줄넘기를 하면서 건강의 양식을 쌓아요.
- ▶ 말과글 시간에는 <우리말 우리글>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맞춤법을 알기 위한 공부부를 하며,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림책을 통해 상상의 세계로 빠지기도 하고 나의 여러 생각들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해 내기도 해요.
- ▶ 수학시간이 되면 <핀란드 수학> 책을 가지고 덧셈과 뺄셈, 곱셈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갈수록 수학 시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요.

- ▶ 학교생활 중에서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는 점심시간이에요. 모두 싱싱하고 몸에 좋은 생협 재료로 맛있는 점심을 먹고나서 긴 시간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더 없이 좋아요.
- ▶ 오후 공부시간에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는 스스로공부, 내 손으로 직접 작물을 생산하는 텃밭 농사, 바느질을 하면서 소근육도 키우고 물건도 만들어 보는 살림, 언제나 즐겁고 신나는 몸놀이, 학교생활 중 지켜야 할 약속 확인과 불편한 것 서로 공유하는 반 회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 ▶ 모든 활동이 끝나고 청소를 하고 하루 중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칭찬할 일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해요.



우리 반 자랑!!

- ▶ 수업 시간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먼저 발표를 하려고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교사와 눈을 맞추기도 해요. 지명이 되지 않으면 무척 아쉬워하면서 다음 순서를 기다려요. 손을 움찔움찔거리면서 다음 지명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요.

- ▶ 수학은 다른 교과들 중 가장 많이 생각이 바뀐 수업 중 하나예요. 물론 처음부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는 수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재미있어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중해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 ▶ 시를 쓰고 낭송하는 것을 좋아해요. 시인이 되어서 주어진 글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나만의 시집도 잘 꾸미고 있어요. 낭송을 좋아해서 낭송을 하고 난 이후 뿌듯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 ▶ 노래를 신나고 크게 잘 불러요. 노래를 부르다가 흥에 겨워서 춤을 추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교실을 돌기도 해요.



- ▶ 역할놀이를 잘해요. 엄마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아빠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왕이 되고 공주가 되는 역할극이 자유시간에 수시로 이루어져요.
- ▶ 몸놀이를 재미있게 잘해요. 반복되는 놀이를 하는데도 할 때마다 새롭고 재미있어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 ▶ 어딜 가든지(계곡이든 놀이터든, 숲이든) 정말 잘 놀아요.
- ▶ 청소를 참 잘해요. 교실 주변 정리부터 시작해서 닦기로 마무리될 때까지 쉬지 않고(물론 조금 장난을 치기는 하지만)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하면서 깨끗해지는 교실을 볼 수 있어요. 청소 잘한다는 칭찬을 자주 듣기도 해요.

사이다반 살림반(3학년)_해돋이

“ 짹, 짹, 짹!”
모두를 부르는 박수 소리와 함께 해돋이가 나타났다. 땀에 젖어서인지 오늘따라 파마머리가 더 뽀글뽀글하다. 요즘 해돋이는 광교산으로 걸어 학교에 온다. ‘배려하며 서로 돕는 시원한 사이다반.’ 7명 꿈돌이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따라 그림이 잘 그려지는군!’ 보드마카로 평면 칠판을 거침없이 입체로 만들어버리는 **지호**는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애들아, 모여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날 수 있을까? 옹지, 앞부분에 연필로 뼈대를 세우면 되겠다!’ 온갖 종류의 비행기 접기를 좋아하는 **하울**이. 자기 몸만큼 큰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 말고 가장 먼저 달려온다.
‘오늘은 웬 행운? 축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내일도 모레도 제발!’ 틈만 나면 “축구, 축구!” 온 몸이 땀범벅이 된 **승우**가 축구공을 들고 나타난다.

‘오늘은 좀 더 맛난 특별식을 닭들에게 줘야지.’ 여치, 메뚜기, 방아깨비가 가득한 봉지를 들고 **서현**이가 달려온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돋이에게 팔씨름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어깨가 떡 벌어진 **희찬**이가 힘찬 모습으로 나타난다.
‘궁금해, 궁금해! 너무 궁금해서 중간에 책을 놓을 수가 없어.’ 손에 <가짜 독서왕> 책을 들고 **상원**이가 천천히 걸어온다.
제주 살이 후 한 뼨은 훌쩍 자라 온 현민, 아이들이 **현민**이 턱 아래에서 서로 키 재기를 한다.



“애들아, 지난 학기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동물들이 구조요청을 해왔단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리고, 인간의 무분별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거북이, 고래 등 바다 생물들이 고통 받고 있어.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지구여행을 하면서 멸종위기 동물들과 병들어가는 지구를 구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해 볼까해.”

이마 주름이 더 깊어지고, 흰머리도 더 늘었지만 해돋이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짱짱하다.
“여러분들의 월(月),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 일(日) 우주의 기운을 모아 지구 수비대를 만들어 보는 거야! 어때?”
부드러운 달(月)빛, 지호! 번뜩이는 불(火)빛, 서현! 샘솟는 물(水), 상원! 편한나무(木) 그늘, 희찬! 정의의 검(金), 하울! 황토기운 흙(土), 승우! 생명의 근원 해(日), 현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지구 수비대 출발!

월화수목금토일, 꿈꾸는 반



사이다반 꿈돌이들은 <문어의 꿈> 노래를 목청 높여 부르며 지구여행을 준비한다. 이곳은 꿈을 꾸는 수지꿈 학교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 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달나라로 날아가면
지호는 옥토끼 문어
모닥불로 불장난하면
서현이는 배냇간새 문어
출렁이는 바다 헤엄치면
상원은 포세이돈 문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희찬이는 메아리 문어
가을 단풍길 산책하면
하울이는 알록달록 문어
꿈을 좇아 달려가면
승우는 동그란 문어
바람 따라 날아가면 현민
이는 종이비행기 문어



탕후루반 살림반(4,5학년)_세계로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그것은 세계로의 바람이었어.’ 탕후루들이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을 때, 그 웃음이 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요정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요정들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탕후루반에 놀러 오세요! 피터팬도 다녀갔습니다! 탕후루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펼치고 싶다고 직접 소개에 나섰습니다.



6월 22일. 탕후루반 마을 산책길에 운명처럼 만난 병아리 친구들 레오, 초코, 밀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병아리로 온 이 녀석들은 어느새 능글능글한 닭이 되었습니다.



이동하

▶ 수지꿈은 학교이자 놀이터이다. 많은것을 배울 수 있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 탕후루반은 실험실이다. 실험실과 같이 여러가지지를 시도해 보기 때문.
▶ 나는 참치이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참치라고 부르기 때문이고, 내가 참치를 좋아하기도 한다.
▶ 20년 후 나는 S대에 들어 갈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예성

▶ 수지꿈은 무지개이다. 여러가지 색상의 놀이와 공부를 한다.
▶ 탕후루는 딸기다. 딸기의 새콤달콤한 맛이 어울리는 것처럼 탕후루반도 서로서로 어울리기 때문이다.
▶ 한예성은 삼각김밥이다. 머리가 세모처럼 생겼으니까(△가 아니라▽)
▶ 20년 후 나는 수의사가 될 것이다. 동물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김승현

▶ 수지꿈은 이상한 학교이다. 다른학교는 공부를 많이해서 머리만 좋아진다면 우리학교는 외부활동도 충분히 하고 공부도 적당히, 충분히 하는 학교이다.
▶ 탕후루반은 행복한 반이다. 쌤, 분위기, 활동까지 아주 좋다. 말로 표현이 안된다. 5년동안 안 좋았던 반은 없었다.
▶ 나는 숲과 바다와 운동, 강아지, 음악,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태어나서 90개의 휴양림을 다녔다. 아버지(네로)가 하는 '느루의 자연휴양림'블로그 많이 봐주세요.
▶ 20년 후 나는 운동선수가 되거나 악기를 잡을것이다. 운동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기도 했고 악기는 다른사람이 하는걸 보면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학교에오면 행복해 진다.
▶ 탕후루는 재밌는 반이다. 우리반 모든것이 좋다. 친구들과, 선생님, 분위기 모두모두.
▶ 조안나는 햇빛이다. 언제나 밝은 모습이다.
▶ 20년후 나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차를타고 가면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 좋다. 힐링이 되는거 같다.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 하신다. 택시기사는 어때?

김민

▶ 수지꿈은 다른학교랑 좀 다른학교이다. 쉬는시간이 많고 수업들이 더 다양하고 달들도 있다. 옆에는 산도 있어 공기도 좋다.
▶ 탕후루를 재밌는 반이다. 다른반보다 활동적이고 재밌는 것 같다.
▶ 김민은 비행기다. 이 세상 모든곳을 다 가고싶다.
▶ 20년후 나는 동물들을 위해 일하면서 살 것이다. 동물들이 너무 좋다. 불



조안나

▶ 수지꿈은 행복이다.



도전을 즐기는 힘찬 반

쌍한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다.
노연우
▶ 수지꿈은 자연이다. 다양한수업을 하고 있다.
▶ 탕후루반은 공부다. 다양한수업을 하고 있다.
▶ 노연우는 선물이다. 가족, 학교중 가장 사랑스러운 선물이다.
▶ 먼 훗날 나는 하늘나라로 태어날 것이다.



고산

▶ 나에게 수지꿈은 방방장이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
▶ 탕후루는 탕후루다! 맛있으니까!
▶ 고산은 미식가다.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을 좋아하니까 아주 좋아한다.
▶ 20년 후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정할 수가 없다.



1학기 탕후루반은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신으로 도전을 즐기는 힘찬 반이었습니다.
2학기 탕후루반은요! “자유롭게 배우도록 놔둬라” “할 말 할 줄 알자” “착하게 살자” 정신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반으로 노력 중입니다.

양다반 살림반(4,5학년)_양다

글을 쓸 때 주저하며 망설이는 편은 아닌데도, '우리 반을 자랑해주세요'하는 글은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 1학기 우리 반은 뭘 했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더라고요. 뭐라도 써보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거듭했지만 결국 백지장만 남긴 채 기한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어느 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아이들의 엉덩이를 붙잡고 과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반 자랑을 3개씩 쓰라고요. 작은 실마리라도 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근데 아이들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되려 저에게 묻습니다. "양다. 우리 반 자랑이 뭐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서로 한참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집에는 가고 싶고 쓰기는 해야겠어서, 한참 머리를 쥐어짜던 아이들이 뭔가를 적었습니다. 정리해보니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반 자랑하기
양다와 우리반 친구들이
있다.
책을 많이 읽는다.
텃밭을 열심히 가꾼다



그 밖에도 내용이 있었지만 역시 제가 기대했던 우리반만의 특별하고 멋지고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책을 많이 읽었던 건 수업이라서 했던 일이고, 텃밭을 가꾸는 일도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니거든요. 선생님인 양다와 학생인 아이들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그 종이를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마등처럼 우

리가 지냈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배추 모종을 심기 위해 땀방울에 호미질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서로 안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던 거,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처음 본 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선택한 책이 맞냐며 막막했던 거, 공부가 싫고 학교는 왜 오는 거냐며 울먹였던 거, 상처주고 민망해서 더욱 큰소리를 치거나 상처받아서 속상한 마음을 애써 숨겼던 날들 말이에요.



함께한 시간이 모두 자랑거리



그뿐인가요. 삼키려다 벌은 수박씨를 심었더니 그게 정말 수박이 됐던 날 어이없이 신기하기도 했고, 저도 모르게 친구의 단점을 들춰던 게 미안해서 몰래 잘해주기도 했죠. 나서는 걸 창피해하던 친구가 술선해서 다른 친구를 도운 날, 500페이지의 책을 함께 완독했던 날, 그리고 방학 전 날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와락 환호하며 기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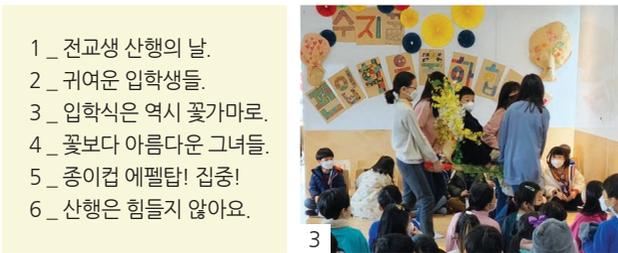
그때야 비로소 다들 왜 '우리 반 친구들과 양다가 있다'고 썼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가 혼자였다면 싸울 일도 없었겠지요.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일도 없었고요. 남들은 좋아하는데 나만 싫은 과목을 공부해야 할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사과하고 용서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나와 타인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나의 강점을 발견할 기회도, 주변에서 용기를 얻어 낯설에 도전할 기회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다 서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우리의 배움과 성장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저 일상을 지냈던 것뿐이었지만 우리가 때로는 나란히, 또 때로는 마주보며 만든 그 사이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학교이며 배움의 터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반 모두 소중한 자랑스러울 밖이에요. 아주 평범한 학생들인 양다반 친구들과 아주 평범한 선생님인 양다, 그리고 특별한 일 하나도 없었던 모든 장면이 양다반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본 아이들의 학교생활

정리_소머즈



- 1 _ 전교생 산행의 날.
- 2 _ 귀여운 입학생들.
- 3 _ 입학식은 역시 꽃가마로.
- 4 _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들.
- 5 _ 종이컵 에펠탑! 집중!
- 6 _ 산행은 힘들지 않아요.



- 1,3 _ 학교에 찾아와 공연하는 풍물, 난타, 탈춤 공연. 보고 배우고 즐거웠던 시간.
- 2 _ 누에에게 줄 뽕잎 따라 삼만리.
- 4 _ 아이들이 키운 누에나방.
- 5 _ 몸놀이 시간 즐기는 피구.
- 6 _ 단오행사의 꽃 씨름대회. 2021의 장사는 누구였을지?
- 7 _ 나눔장터 수지꿈머니. 살림살이 장만하러 가볼까~~
- 8 _ 단오행사 팔씨름대회. 팔씨름의 승자는?





1



4



2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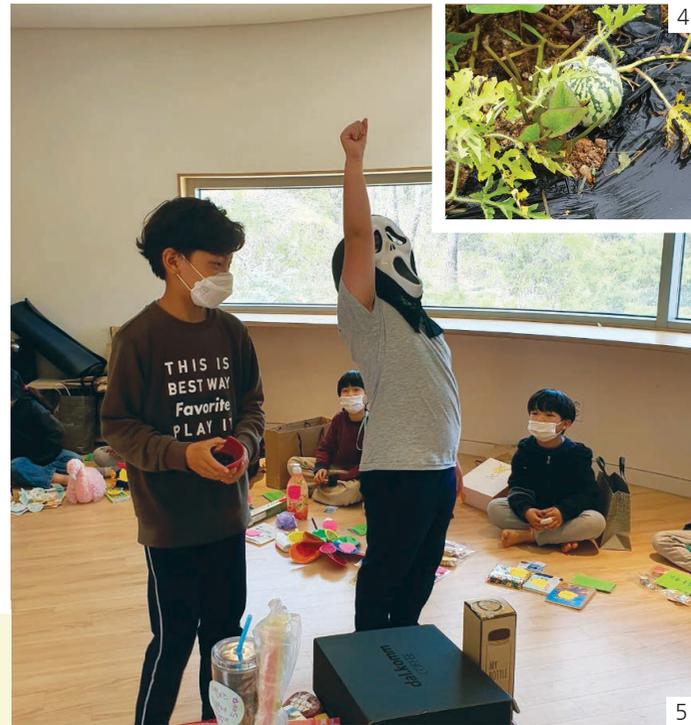
2



3



5



5



4

- 1 _ 텃밭살림도 잘할 수 있어요.
- 2 _ 삼질 정도야... 우리에게 맡겨 주세요!!
- 3 _ 스승의날 아이들이 함께 준비한 행복한 시간.
- 4 _ 우리 텃밭에 수박이 이렇게 크게 열렸어요.
- 5 _ 나눔장터 때 경매시간이 역시 최고!
- 6 _ 학교살이 조별 런어웨이 고양이 팀.
- 7 _ 마을버스타고 낙생저수지 다녀왔어요.
- 8 _ 맛단지 하늘샘과 함께하는 요리수업.
- 9 _ 옥상에서 물총싸움 중. 여름은 역시 물놀이지~



6



6



7

- 1 _ 아이들의 발표력!! 서로 이야기 하고 싶어 난리!
- 2 _ 체력단련의 날. 힘들다 힘들어!!
- 3 _ 달맞이꽃으로 티셔츠 염색중.
계곡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익숙한듯.
- 4 _ 우리가 만든 염색 티셔츠 예쁘죠??
- 5 _ 자전거 로드교실에 다녀왔어요.
- 6 _ 우리가 투표하여 결정되는 일꾼. 선거 공약 포스터도 직접 제작 합니다.
- 7 _ 수지곰 새로운 닭 식구 초코, 밀크, 레오.
그중에 레오와 함께. 많이 먹고 더 크자, 레오!!



7



8



9



日刊

일간 방과 후

오후3시30분, 학교에 와 보신 적이 있는가? 아이들이 돌아간 적막한 학교를 떠올리셨다면 한참 빛나겠다. 그 시간부터 학교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 하교 후의 왁자지껄함은 모두가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방과 후'의 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함께 꾸어 왔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첫 걸음을 내딛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미약한 시작이지만 큰 걸음이 되어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매일 매일 다르게 펼쳐지는 우리의 일간 방과 후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_느긋

화요일, 수지샘의 수지꿈 '방송댄스'

인터뷰 내내 더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들 자랑을 하시던 수지샘의 마음이 방송댄스반 한명 한명에게 오롯이 전해졌을 듯 하여 팬스레 몽클해 지던 어느 맑은 가을날의 이야기를 옮긴다.

느긋 수지꿈의 댄싱퀸, 수지샘, 방과 후 방송 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수지 쉬는 시간에 발레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한명 두 명 찾아와 발레 동작을 재미삼아 배우곤 했어요. 점점 하다 보니 몸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발레와 방송 댄스를 결합하여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실용무용을 전공했거든요. 마침 학교에서도 방과 후 요구들이 있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느긋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수지 입시를 위한 레슨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한 수업시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 무척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참 잘 따라와 주기도 하고 흥미를 보여서 주1회가 아니라 몇 번 더 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 였어요. 순수한 발레 동작과 대근육을 활용한 운동도 많이 했어요. 아이들에게 체력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대근육 운동은 운동효과가 높아

요. 집중력과 성장기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이 첫 시작이라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느긋 수지샘께서 아이를 잘 낳는 골반 스트레칭 법을 전수하기도 하셨다고.

수지 하하하!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여러 가지 팁을 주는데 아이를 잘 낳는 스트레칭이라고 하니 귀를 쫑긋하며 가장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느긋 한 학기를 진행하시며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요?

수지 아이들과는 전혀 아쉬움이 없었어요. 너무나 즐겁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로도 행복했습니다. 다만 주 1회라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없어 아쉬웠고, 코로나 시국이라 단계가 올라가면 중단되어 흐름이 끊기는 점이 아쉬웠어요.

느긋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지 너희들과 함께 한 자체가 즐거웠어. 순간순간이 모두 좋았습니니다. 앞으로도 함께 주욱 즐기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 4단계로 수지샘의 방송댄스는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수지샘이 방송댄스에 품고 있는 열정 가득한 마음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이를 순산할 수 있는 골반 스트레칭 비법을 전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백, 늦지 않았어요, 넷째!) 수지샘과의 만남을 청하시길. 꿈

수요일은 타잔의 생태 '숲속나무'

수요일 3시30분부터 5시30분 사이 학교 주변 뒷동산, 작은 숲길, 계곡,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까르륵, 소리가 들린다면 한번쯤 돌아보아도 좋다. 수지 꿈 방과 후 '숲속나무' 아이들의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숲속나무의 숲속이 조수아가 안내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우리 숲속나무는 일주일에 한번 다섯 시간을 만나요. (사실은 두 시간이지만 수아에게 있어 생태는 다섯 시간을 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짝 찬 시간 이었나 보다) 타잔이랑 계곡에서 물고기 잡고 곤충도 잡고 노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빙그레랑 책 읽는 놀이도 재미있었어요. 처음에 학교에서 책 읽을 때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비오는 날 비 맞고 뛰면서 노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또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솔래잡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방아깨비랑 사마귀보고 놀란 적도 있지만 친구들이랑 함께 바깥에서 노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서수지 놀이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서수지 놀이터는 다름 아닌

저수지 놀이터였다) 타잔은 재미있고 친구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안전도 잘 지키시고 너무 너무 재미있어요. (수아의 작은 입에서 재미있다는 표현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듣기만 해도 숲속나무 아이들의 즐거웠을 시간들이 저절로 그려졌다) 생태수업을 통해서 곤충을 배우고 꽃잎을 배웠어요. 풀잎 호루라기 부는 걸 배웠고 꽃팔찌도 만들 수 있어요. 내년엔 입학할 동생들아, 생태 힘내서 잘 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소원은 얼른 커서 4학년 되가지고 방댄(방송댄스)하고 싶어요! - 조수아

생태 수업 이야기를 하다 갑작스레 방송 댄스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끝맺음을 한 조수아의 고백을 삭제하지 않고 옮겨 적는다.

아이들은 자연과 어우러진 '숲속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으리라. 타잔과 빙그레가 아이들과 엮어가는 시간

의 숲에서 오늘도 숲속나무는 왁자지껄, 시끌벅적, 단단하게 그리고 즐겁게 자라나고 있다. 꿈

금요일은 놀고 놀아도 더 놀고 싶은 '더 놀' since 2018

'더 놀'은 더 놀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담백 담백 만든 수지꿈의 첫 번째 방과 후 프로그램 이다. 그래서 '더 놀'이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첫사랑 같이 놀 내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아 있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

'더 놀'은 그냥 논다. 방과 후에 그냥 논다.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이 자유롭게 논다. 이따금 이벤트가 준비되기도 하지만 말마따나 '이따금'일 뿐이다. 부모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다가 같이

놀기도 한다. 품을 낼 수 있는 부모가 내기도 하고, 어떤 학기에는 외부 돌봄 선생님을 모시기도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정하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저 더 놀 생각만 하고 '더 놀'에 오기만 하면 된다. 다만, 방과 후 두 시간을 더 놀아도 아이들은 '더더더 놀자!' 고 외친다는 함정이 있다.

코로나의 시대가 저물어 가면, 밤새 노는 '더 놀'을 한번 꿈꾸어 본다. 사심 가득 담아 부모들의 '더 놀'도 살짝 꿈꾸어 본다. 나도 놀고 싶드아아아아! 꿈

목요일은 바람따라 소리따라 '가야금'

바야흐로 '국민학교 시절', 당시 국악중학교가 처음으로 생겼더라. 우리 '국민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를 갈아타느라 가야금을 메고 버스를 기다리는 언니들이 있었다. 그때부터 가야금을 메고 학교에 다니는 언니들을 동경했었지. 악기를 메고 다니는 소녀라니, 얼마나 로맨틱한가. 악기를 메고 다니고 싶은 꿈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아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다. 첼로는 너무나 목직했으나 메고 다니기엔 제격이었다. 허나,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을 연주하고 싶은 나의 이상과 나비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나의 현실은 날마다 충돌했으며, '하하하, 느긋 나비야를 그렇게 구슬프게 컨다면서요!' 세계로의 격한 놀림 속에서 슬그머니 첼로를 내려놓게 되었다. 나중에 다시 메고 다녀줄게. 안녕.

그러던 중 빙그레와 여러 부모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방과 후 가야금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가야금이라니! 드디어 가야금을 메고 학교에 다니는 로망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었다. 비록 나의 아이가 시작했지만 난 아이의 가야금 '모찌'(이 단어도 너무나 국민학교 시절의 단어군요, 요즘 말로는 가야금 '셔틀' 쯤 될까요?)를 자처하면 되니까 가야금을 메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거다. 야호!

아이들이 가야금과 처음 만나고 왔던 봄별 따스했던 저녁이 기억난다.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아이들이 가야금 줄을 튕겨주는데, 아! 그 소리 참 맛깔 난다. 흥취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술이 술술 넘어간다. 그 가야금 가락에 취해 술을 마시고 싶은데, 이제 박하 온은 가야금을 학교에 두고 더 이상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 무척 무겁기 때문이란다. 그때 그 가야금 메고 다니던 언니들은 힘들지 않았을까? 로망은 로망으로 남겨야 한다. 더군다나 가야금을 메고 버스정류장에 가려면 산길을 한참 내려가야 하니 꿈은 꿈으로!

아이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야금 시간만큼은 황진이와 황병기로 빙의하여 때론 신명나게 때론 진지하게 가야금을 연주한다. 어쩌면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 술잔을 꺼내고 마는 부모들의 '간 건강'을 위해 더 이상 집에서는 가야금을 튕기지 않겠다는 비장한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애들아, 집에서 연습 좀 하자!) 모쪼록 가야금을 메고 다니기 보다는 연주하는데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며 이 엄마는 너희들에게 건배를 청한다. 사실은 해 저물녘 국악 방송에 귀 기울이며 가야금 가락을 즐길 줄 아는 너희들을 보고 있자니 '그거면 되었다' 싶기도 하다. 꿈



2021년 수지꿈의 문을 두드린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인터뷰 _ 여백 / 신편입 정리 _ 나무

해마다 3월이면 부모들은 그 해에 입학하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새로워서 얼굴 익히는데만 해도 한학기가 간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만남이 부족한 관계로 다툼과 얼굴, 아이까지 매칭시키는게 쉽지 않다. 이런 상황속에서 올해 많은 신입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이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정말 야속한 코로나다. 아줌마의 배짱으로 선생님들과 농담도 건네고 과감한 스킨십도 하는 나지만 신입 선생님들께는 아직은 본성을 숨기고 예의 바르게 두손 모아 90도로 인사하게 된다.

맥주 한잔 마시다가 얼떨결에 신입교사 선생님들 인터뷰를 제안받았다. 졸업하고 나중에 학교에 놀러 왔을 때 어색하지 않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는 검은 속내를 뒤로 하고 부탁을 흔쾌히 받아주는 선배의 쿨한 모습을 보이며 수락했다. 수락한 이유는 작년 인사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을 면접할 때의 모습과 짧은 기간이지만 변화된 선생님들의 모습, 진솔한 모습을 뵈고 싶었다. 원래는 한 분씩 심층 인터뷰를 계획했는데 중간에 소통 착오로 세분이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계셨다. 여기에서 고백하자면 수지쌤은 시간이 안맞아 SNS로 인터뷰를 대신했다. 차마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다떨며 얘기하는 분위기를 상상하며 왔던 내가 갈피를 못잡고 횡설수설 인터뷰를 진행했다

- ▶ **대안학교 선생님께서 1학기를 보내셨는데 생각했던 거와 생활하면서 느끼는 차이점이 있나요?**
- ▶ **학교 생활외에 자신을 위해 하는 취미생활은?**
- ▶ **수지꿈에서 짧은 생활이었지만 재미있는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 ▶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한마디.**



채송화쌤

▶ 수지꿈학교에 예전에 짧게 몸담았지만 신입교사의 맘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시스템 속에서 신입교사 교육이 이루어지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은 하지만 기존 선생님들의 친절과 협력속에서 잘 배우고 있어요. 현재는 아이들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아이들은 천천히 잘 생활하고 있어요.

▶ 산책이나 독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이고 작품도 구상하고 글쓰기도 해요.(살짝 채송화 선생님께 추천받

은 책을 공유하면 시집으로 '불꽃'과 SF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추천해주셨다.)

▶ 1학기 동안 목표는 사고없이 재미있게 지내는거였어요. 기억에 남는 일은 1학기 교육 자료를 스크랩해서 가정에 보냈는데 2학기때 다시 가져 온 학생이 있었어요. 손근육이 발달 하지 않은 1학년 시기가 파일에 공부한 것을 넣는 것도 쉽지 않았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파일을 가져온 학생에게 왜 가져왔냐고 물으니 자기가 공부한 것을 다시 보는게 너무 좋더라는 대답을 들으며 내가 나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판단했구나 느끼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 애들아~충분히 잘하고 있어. 부모님들도 잘하고 계십니다.

수지쌤

▶ 특별한 차이점은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미디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다양한 취미활동들이 영상을 통해 노출이 되고 대중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미술영상들을 통해서 집에서 그림이나 캘리그래피, 다이아리 꾸미기 등 영상을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혼자 있을 때 내면을 많이 보게 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는 퇴근 후 간단한 트레킹과 함께 호흡 조절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분투에서 다양한 학년의 아이들이 상황극 놀이를 하는데 저도 함

께 상황극을 연출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놀았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 저와 모든 선생님, 그리고 모든 부모님, 모두가 아이들 인생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기를 바라요.



양다쌤

▶ 중등에서 연극 선생님을 할 때 대안학교 교사로서 경험을 했는데 초등은 중등과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열심히 배우고 있답니다.

▶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해왔기 때문에 집에서 발레를 하는 편이에요.

▶ 특별히 기억나는게 있다가보다는 큰 탈 없이 일상을 유지하는게 행복인 것 같아요.

▶ 애들아~고맙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신지 알고 존경스럽습니다



하나쌤

▶ 학생들 교육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외의 일(학부모 상담, 학교 행사등)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는 재미있기도 하고 잘 해야하는데라는 부담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 그림 그리기와 명상을 즐겨요. 아무 생각없이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좋아해요.

▶ 지금 중등 아이들을 보면 심하게 사춘기를 겪지 않고 귀여운 사춘기의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 본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 표현을 너무 잘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저의 어린시절을 돌이켜 보면 부럽기도 해요.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계속 지켜보고 도와주고 싶어요.

▶ 너 자신의 모습으로 자라라. 부모님들은 아이와 동일시 하지 말고 부모님 자신의 삶을 사시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시간을 훌쩍 넘겨 이야기를 나누었던만 글로 쓰려니 빈약함을 느낀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만남의 여백을 남겨 두려고 한다. 꿈학교에서 생활한지 1년도 되지 않으셨는데도 벌써부터 내공과 여유, 힘이 느껴진다. 수지꿈학교에서 신입 선생님의 신입이라는 글자는 新入(새로 들어옴)이 아니라 禪立(신적인 존재가 바로 서 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꿈

해동이 선생님을 알고 싶어요

인터뷰 _ 공간차이

4년전 안나의 손을 잡고 수지꿈학교를 등교하던 그 시절. 많은 궁금함을 품고 학교 곳곳,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걸논질 하며 소심하게 둘러봅니다. 그 중에 소녀같은(?) 선생님이 한분이 한눈에 들어와 먼 발치에서 바라 봅니다. 뭐가 그리 즐거우신지 연신 소녀같은 웃음을 머금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과 함께 학교 마당을 뛰어 다닙니다.

선생님 인터뷰를 담당하면서, <해동이>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대면 인터뷰 대신 서면 인터뷰 질문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을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해동이> 선생님에게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애들아, 해동이 이름은 정동진이란단. 해동이는 해가 뜨는 가장 동쪽에서 태어났지. 해동이가 태어난 기념으로 해동이 이름을 따서 ‘정동진’이라는 곳이 만들어졌어.”

“에이, 거짓말이죠?”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단다.” “어? 진짜네.” “해동이, 저 거기에 가봤어요.” “거봐, 기본 친구도 있잖아.”

이렇게 아이들과 제 이름을 가지고 농을 하며 저를 소개하곤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정동진’ 바로 옆 묵호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은 거의 서울에서 했지만요.

어릴 적 꿈은 미스코리아였습니다.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된다며 끈질기게 놀리는 오빠 덕분에 그 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깨져버렸죠. 그런데 몇 해 전 수지꿈 화가인 가인이(9학년)가 미스코리아가 된 저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뒤늦게나마 꿈을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저는 지금도 가슴 뛰는 일을 찾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해보고 싶으신 수업이 있으신가요?

몇 해 전 여행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북한과 우주여행은 아이들과 조사하고 계획만 세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얼마나 더 살면 실제로 북한을 여행하고 우주를 탐사하며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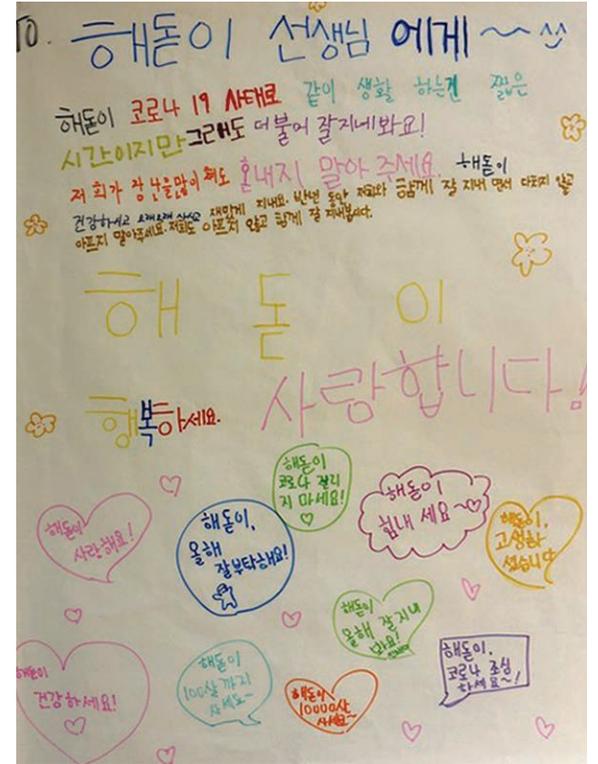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데 유난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교사의 맘을 애태웠던 아이들이 조금 더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중학교 /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탈선! 저의 학창시절에는 주로 빵집에서 남녀학생이 미팅을 했어요. 저도 친구의 소개로 기회가 생겼지요. 빵집 앞까지 갔다가 암행감찰 교사에게 걸릴까봐 겁이 나서 그냥 돌아왔었지요. 다음 날, 용감하게 미팅을 하다 교사에게 걸린 친구들은 교무실에 불려가 혼나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반성문을 100장 쓰더라도 질풍노도의 불 빨간 사춘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수지꿈이 삶에 가장 중요하게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1번에서 4번까지의 질문은 가볍게 써내려가다 5번의 질문에서 턱 막혀버렸습니다. 10년을 몸담고 있던 ‘수지꿈 교육 공동체’와 나의 ‘삶’이라는 주제가 저에게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원고부탁을 받은 일주일 내내 교육공동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생각의 파편들을 오행시로 풀어볼까 합니다.



교_ 교육의 출발점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고 가르치려드는 교육엔 배움도 없어요.

육_ 육아도 마찬가지로.

공_ 공을 들여 쌓이는 건 탐만이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 부모자식, 부부, 이웃 간 서로 정성과 진심으로 대해야 튼튼한 신뢰가 쌓여요. 그건 하루 아침에 되지 않지요. 네모를

동_ 동그라미가 되게 하려면 각진 귀퉁이를 수없이 깎고 마모시켜야 해요.

체_ 지방을 태우듯 몸과 마음에 낀 교만과 자만과 나태를 덜어내야 합니다. 쉽 없이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야하지요. **꿈**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수지꿈 찐 덕후 팬더

16년~18년 무려 3년이나 재정일꾼을 하며 경기도, 용인 대안학교 지원, 영구터전 등등 큰 일엔 그가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늘 한결같은 모습에 후배들의 든든한 선배였던 서산마애삼존불상 같은 팬더를 만나 보았다. 정리_도우너



팬더가 기억하는 수지꿈 3대 사건?기억?이 있다면?

14년 2학기에 첫째 딸 정연이를 수지꿈에 보내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동육아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수지꿈에서의 기대도 나름 있었는데, 그 당시 수지꿈은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끄는 모습이 강했더라고요. 저는 '16년에 재정일꾼으로 학교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를 포함해서 한가위, 구달, 자전거가 처음으로 아빠 일꾼으로서 참여를 시작했던 것이 수지꿈 변화의 첫 번째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아 그렇다! '16년 엄마 아빠 일꾼들!

두 번째는 학교 규모의 확장과 조례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용인시/경기도 지원금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현재보다는 규모가 꽤나 큰 학교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을 했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 대외적으로 더 외

형적으로 크게 자라난 시절이었죠. 하지만 학교가 커지니 소수의 사람간의 끈끈한 유대가 아쉽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영구터전인데,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그리며 짓다 보니 넓게 지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만큼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셋방살이, 집주인이 아닌 설움에서 벗어난 게 어디냐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영구터전의 의미 중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 많은 토론과 합의 끝에 소수의 힘이 아닌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영구터전을 건설 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수지꿈에 큰 변화가 필요할 때 다들 힘을 모아 주세요!

수지꿈을 떠나 정연이가 다니는 간디학교는 어떤가요

간디학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

춘기 무렵에는 친구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다보니 큰 대안학교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6학년 늦은 가을에 학교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 나와서 작성한 파워포인트로 각자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전혀 하기 싫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살아갈 삶에 대해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이나 얼굴도 모르는 어른들 앞에서 보여주기 싫은 삶의 치부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언급하고 고백하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뚜렷하게 발표를 하더군요. 그때 간디학교에 빠졌습니다. 정연이가 지금은 중학교 2학년 2학기예요. 금산간디는 한 학기를 마무리 할 때 졸업 논문만큼은 아니지만 주제 발표를 합니다. 학기 초에서 보여졌던 아이의 모습과 학기 말에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요. 성장한 폭이 눈에 띄게 보이죠. 그래서 그 발표를 볼 때마다 마음 한 켠에선 선택을 잘 했구나라는 안도감을 갖습니다.

수지꿈에 대한 애정도 많고 참여도 누구보다 많이 하셨는데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

둘째 수연이가 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면 8년 반을 다닌 셈이네요. 주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수지꿈에 일정 비용을 내고 아이들을 보내는데 그 비용 안에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비용도 있다고 말씀 드렸어요. 같이 청소도 하고, 시설 공사도 하고, 용인시 등에 내야 할 서류 작성도 협업하고 그러면서 알아나가는 다른 분들의 면면들이 무척 귀하게 느껴졌죠. 저는 IT관련 월급쟁이인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취미,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 다시는 올 수 없는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금 없지만 팬더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지금의 꿈은 무엇인가요

학창시절의 꿈은 월급쟁이에 와이프와 아이들과 차와 집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어? 다 이론건가? 지금의 꿈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이 없어요. 아니 꿈이 없군요. 공동육아,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냈고 지금도 계속 십 년이 넘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돌아해보면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안 교육이 어떻고, 공동육아가 어떻고 전예요. 공동육아 시절에는 구름, 마당과 혜성, 윤성이를 봤던 기억, 반짝이와 우주의 수내동 집에 놀러 갔던 기억, 개구리가 사회를 본 굴렁쇠의 해보내기 잔치도 기억이 좋네요. 또 일꾼 회의 마치고 다 같이 뒷풀이하러 갔던 동천동, 수지구청, 신봉동 길거리가 좋고요. 또 영구터전 짓는다고 네로의 이꿈으로 서울로 설계사를 만난 기억도

좋습니다. 또 다시금 이러한 좋은 기억을 이루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의 꿈일 수 있겠네요.

수지꿈이 여러모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코로나를 핑계로 지난 일년여간 학교 참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큰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감소, 외동 아이 및 맞벌이 증가, 대안학교에 대한 기대감 하락, 학교 지대, 건물 가격 하락 등이겠죠. 그러나 이런 대외적 변화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대로 두세요. 어찌겠어요? 대신 우리만이 가진 장점인 공동체를 코로나 이후 확실하게 회복시키고 더욱 발전시켜서 다른 가정의 아이가 내 아이처럼 느껴지게끔 살아보세요. 아이가 어릴수록 다시는 오지 않을 크나큰 추억이 된답니다.

다음 타자를 지목해주세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재정사수이자 이번에 졸업을 하는 바람꽃, 힘든 일꾼 시절을 잘 버티게 해준 애벌레, 챙겨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반짝이, 간간하지만 그래서 믿음직스러웠던 재정후임 짝이, 항상 모든 어려움을 감싸 안아주었던 반디, 논리와 선천적 공감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영원한 수지꿈인 여백, 아. 이렇게 써보니 여백이네. 당첨. 꿈



꽃가마타고 입학한 수지꿈, 그 곳에서 우리 가족은 성장중

글, 그림_하이밍



낭만은 뜯어 먹어야 제맛



마음의 굳은살 생성중



잠들기 직전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 여울이..



가고싶은 학교, 수지꿈



지난 6월 언니오빠친구들의 생일축하편지를 묶어 만든 책을 받아온 여울이.



거친파도를 서핑하듯 수지꿈에 입학한 우리가족은 소중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글_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2학기가 시작되었네요. 이백일 남짓 수지꿈과 연을 이어나가는 중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거 같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장면처럼 그려집니다.

시작부터 남달랐던 입학식날 누구보다도 떨렸을 딸아이를 응원하기 위하여 민망한 줄도 모르고 “사랑해~”라고 크게 외쳤던 그 순간, 학교까지 20여 분을 차로 달려가야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울곧 딸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 아빠인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순간, 차안에서는 함께 노래도 부르고 수다도 떨고(비록 딸아이의 답은 여전히 단답형) 가끔 다투기도 하던 차안에서의 데이트, 처음으로 학교에서 신입생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딸아이 친구들 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 이름이 아니라 별명을 불러야 해서 더 어색했고 누가 누구의 엄마, 아빠인지 헷갈려 실수를 몇 번이나 했던 그 순간, 처음으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 외벽에 기름칠을 하면서 뿌듯해했던 그 순간,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 비대면 회의라는 신통방통한 접촉 방식으로 음주 회식을 즐겼던 그 순간, 딸아이 친구들과 공원으로 놀러 가서 땀병에서 이리저리 굴러보았던 그 순간들, 처음으로 경험해본 학부모라는 타이들이 이렇게 버라이어티해도 되는 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수지꿈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참으로

아름답게만 느껴지셨겠지요? 물론 모든 시간이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입학하고 나서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타박을 무지하게 받았었습니다. 아직도 그 중 한 분은 하루라도 빨리 전학을 가라며 저를 아직도 설득하고 계시지요. 그분에게 제 딸아이는 시한부 수지꿈학교 학생입니다. 양가 부모님과 트러블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트러블도 꽤나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와이프 반대로 쓰지 못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불필요한 트러블이라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딸아이 학교 문제로 꽤나 심각하게 대립각을 세우곤 했었습니다. 저 스스로 대안학교를 처음 보내겠다고 결심했던 마음은 새카맣게 잊고 딸아이에게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기도 하고 일반 학교를 다니는 딸아이의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불안해 하기도 하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가끔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로 딸아이를 위한 길일까?라고 몇 번이고 스스로 되묻기도 했고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책도 읽어보고 학교 부모님들과 대화도 해봤지만 한번 흔들린 제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 왜 흔들릴까? 나는 뭐가 자신이 없는 것일까? 결국은 아직도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없이 밝고 건강한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자신이 생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수지꿈학교와 인연을 맺으면서 우리 가족은 소중한 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든든한 동반자들... 수지꿈학교가 아니라면 어디서 이런 소중한 보물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한 분 한 분 너무 존경스럽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동반자 여러분들 덕에 저도 성장하고 우리 딸아이도 커가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자라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흔들리고 제 마음속에서 파도가 치겠지만 동반자 여러분이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화면이 아닌 같은 공간 속에서 주머니 받거나 한잔하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곧 오겠죠? 지금까지 수지꿈학교 1학년 봄이 가족의 좌충우돌 수지꿈학교 적응기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꿈



위드코로나, 위드수지꿈 익숙해질 듯 아직도 어색한 줌 회의

글_종이

2020년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는 어느새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되며 우리 생활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고 수지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 수업, 각종 회의 및 반모임, 학부모 교육 등 상당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학교식구와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가적으로 학부모들의 강제 디지털화에도 한 몫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공식적인 모임들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회의로 바뀌고 온라인 모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처음 줌 회의를 하기 시작했을 무렵이 생각납니다. 오프라인에서 보면 모두 반가운 얼굴들인데 이상하게 줌에서 만나면 표정부터 어색해지고 입까지 굳어지면서 좀처럼 화면의 나의 모습이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은 기본이고, 회의 중 왔다갔다, 들락달락 자칫 정신 사나울 법하지만 우리는 학부모라 그런지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 얼굴이 한 번씩 비춰질 때면 어색했던 것들이 한결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해 질듯 익숙해지지 않는 줌 회의이지만 장점들도 있습니다. 선배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오프라인 회의 시간은 영화 베테랑의 사장단 회의처럼 길었다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또 청동기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듯 적응을 넘어섬은 물론 즐기며 각종 회의와 모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꿈**

줌으로 만난 시간들을 되돌아 보며

2021 정기총회_ 수지꿈 학교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2021년 정기 총회! 일 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총회입니다. 역시 줌 회의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100% 출석의 기염을 토하며 정기 총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물론 중요도가 매우 높은 총회이기에 조금은 진지한 분위기일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을 엿볼 수 있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항상 넘치는 에너지로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세계로... 그 에너지는 다 아이들에게 주고 오셨나 봅니다. 일어나요 세계로!



빙그레, 멍게!! 역시 우리 학교의 베스트 커플답게 화면에서도 애정 뽐뽐!!



화면을 뚫고 나오는 스산함.. 회의 내내 큰 웃음을 주신 해돋이 쌤!!



베스트드라이버 지나쌤과 사이이다! 운전 중애도 회의에 참석하는 이 열정!! 어디를 가시는 길이 신지 궁금하네요!!



일꾼 소개도 깨알같이 줌으로 하니 집중도가 두배!



우리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턱을 괴고 있어도 자꾸 고개가 떨어지는 이유는 뭬까요?

소모임_ 수지꿈에서 빠질 수 없는 소모임들도 줌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술을 즐기는 주책 모임에서도 줌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전하게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교육_ 수지꿈의 섭외력에 또 다시 놀랐던 순간!! 임승관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는 법이라는 주제로 줌으로 수지꿈 학부모와 소통하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면서 고민들을 질문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신 편입 교육_ 신입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뒤풀이가 하필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미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걱정도 잠시, 역시 우리 일꾼들은 메타유니버스급의 저세상 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브랜드 꿈을 이용해 맛있는 음식(술안주)과 술을 집 앞으로 배달해주시고, 마치 새터를 온 것 같은 느낌의 게임들까지.. 화면을 뚫고 만나는 신묘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책모임의 핵심 주축이신 이분들!!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그들의 손암호!!!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모임의 문화를 다시 써내려 가면서 2021년 온라인 회의의 문화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한 켠에는 서로 마주앉아 술잔을 나누며 때로는 교육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도, 때로는 실없는 농담도 나누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꿈**

이걸 또 해냈지 말입니다! 시간에 맞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꿈 수지꿈학교

글_나디



중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네 학교에 서는 학부모가 그런 일도 해?” 네. 합니다. 건물 외벽 외장재 나무에 오일을 칠 하기도 하고, 축구공이 학교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둥을 세우고 그물망을 씌우기도 하고요. 자갈하게 는 대형 폐기물 신고나 인터넷 연결이 안된다고 KT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 말이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월 이 가면 공간에 때가 타고 고장이 나지요. 그래서 이렇 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지꿈 시설소 위와 학부모는 감히 시간에 맞서 싸운다고. (오글거리 지만 한번쯤 이 멘트를 꼭 날리고 싶었어요.) 처음엔 봉우리 몇 개 넘으면 정상이 보일거라 생각했습 니다. 외벽에 오일을 칠하면, 배수로를 정비하면, 대청소

를 하면 아름답고 깨끗한 학교가 될거야. 얼마나 보람차 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오일 먹은 나무의 색은 또 조 금씩 허영계 바래고, 모래를 퍼낸 배수로는 다시금 모 래가 쌓여가고, 대청소 후 반짝임은 점차 빛을 잃어갑니 다. 속상했습니다. 뿌듯함이 채 가지지도 않았는데 어딘 가가 또 낡고 고장 나는 학교를 보는 것이요. 시간이 공 간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동안 전 정말 모르고 살았 는데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어떤 공간이 어제와 다른없 이 오늘도 멀쩡하다면 그건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계속 멀쩡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돌본 덕분이라는 것을요. 또 하나 고백 아닌 고백을 하자면, 처음엔 반신반의 했



학교를 가꿔온 우리 학 부모들의 능력치를요. 힘들기는 했습니다만 눈으 로 직접 본 적은 별로 없 어서 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굳게 믿습니다. 건

공동체가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 험은 수지꿈에 오기 전엔 별로 못 해 봤는데요, 겪어보니 몽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어디서 만나겠 어? 싶고요. 여기서 강조하지 않으 면 안될 것 같은데, 해보지 않았더 면 계속 멀기만 한 일들이었을 거에 요. 그러니 혹시 언젠가 망설이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냥 한번 뛰어 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수지꿈에 서, 시간에 맞서 봅시다! 꿈

습니다. 정말 그 모든 일을 직접 해 낼 수 있을지. 내심, ‘여차하면 사람 을 부르자. 그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더 익 숙한 자세였으니까요. (잠깐, 이런 제가 어떻게 시설 일꾼을 하게 되었 을까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작년 시설 일꾼이신 사이다-만능 맥가이 버-께서 실질적인 작업을 맡아서 하 시고 저는 그 외에 정기 회의 참석이 나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던 것이지 요.) 그런데 점점 어려? 싶었어요. 이게 되네? 이걸 해낸단 말이야? 저는 수지꿈 학부모들의 능력치를 몰랐습니다. 영구터전을 짓고 손수 이사를 몇번이나 하고, 10여년 간

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축구망 기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 방법을 설계하고, 물 새는 수도가 배수관 을 우산 살로 뚫어 고정하는 기지 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렇게 적고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 했는지 광고를 하는 것 같아 부끄 럽습니다. 그리고 시설 일이 엄청나 게 어렵고 많다는 인상을 퍼뜨려서 기피 1순위로 만드는 건 아닐까 걱 정도 됩니다. 맞아요. 일반적인 경 우라면 참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 데 여기는 수지꿈이라서요. 기꺼이 품을 내고 머리를 맞대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렵지 않아요. 심지 어 품앗이 노동의 즐거움이 있어요.





2021년 코로나와 함께 끝까지 꿋꿋하게 교육소위는 달려갑니다

글 _ 탄빵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2021년, 대안학교 적응에 필수 코스라는 신입 부모교육이 시작 되었다. 1월부터 시작 되어 6월까지 매달 1회, 6차까지 진행되는 대장경의 교육, 이를 통해 부모들도 대안 교육 그리고 수지꿈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노력했다. 나도 3년전 수지꿈에 입학했을 당시 대안교육과 수지꿈에 대해 알아 가는 시간, 대안학교의 부모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아이들과 성장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색했

던 부모님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교육을 최대한 잘 전달 하고자 교육일꾼으로서 손을 들었고, 나로서도 긴장되고 떨리는 교육의 연속 이었다. 1월 1차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교육이 시작 되었다. 어색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 했으나,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기존 학부모가 대거 포진된 이번 1학년! 어색한 분위기 없이 서로의 소개와 학교소개로 간단히 마무리 되었다. 2월 2차 교육은 수지꿈의 필수 코

스인 수지꿈의 살아 있는 화석 '여백' 옹의 수지꿈의 역사와 발자취를 알아보는 시간, 수지꿈 대학교의 교수님 '네로'의 대안교육의 이해 시간을 통해 대안교육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 3월 3차교육은 수지꿈의 왕선배님 이사자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신 산아래를 모셔서 공동체 교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이유, 유형, 해결 방법등을 유경험자의 입장으로 마음에 꽂히는 교육을 해주셨으며, 그중 마지막 이야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 사람은 다양하다. 나도 다양하다. 옳은것은 없다. 결국 내안에 그들이 있다." 라는 명언으로 교육을 마무리 해주셨다. 4월 4차교육 경기 코로나19 대책 단장 이신 임승관 병원장을 모시고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법' 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 되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방역대책, K방역의 위대함을 역설 하기 보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폐 끼쳐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동요하지 않고 시민의 자율성과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강의를 통해 모두의 감동을 이끌어낸 잊을 수 없는 교육 이었다. 5월 5차교육 '대안교육 부모로 산다는 것' 이라는 주제로 여경쌤과 빙그레가 수지꿈 교사로서 수지꿈이 표방하는 교육관과 부모님들에 대한 기대와 당부의 교육이 있었다.

대안 교육을 직접받은 양다의 '내가 경험한 대안학교' 라는 교육은 부모들이 잘 모르는 대안교육을 받는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하여 모든 부모에게 기립박수를 얻어 내었다. 6월 6차교육은 '교육돌아보기' 시간으로 교육일꾼인 '탄빵'이 대안학교를 선택하고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느낀점을 소개하고 이를 시작으로 부모님들이 4개월간 경험한 대안교육 그리고 6개월간의 교육 소감 등을 들을 수 있었다. 6개월간 2021 교육일꾼으로서 교육을 준비하면서 사실의 전달, 지식의 전달 보다는 대안교육 부모로서 각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있는지, 내 아이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각자 고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했으나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뒷풀이나 소통이 부족했던 아쉬운 시간 이었다. 교육을 준비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느낀 생각은 각자 다른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대안학교를 선택했다. 하지만 수지꿈 학부모 모두가 같은 모습인 것은 아이들에게 '진심'이라는 것이다. 한 아이의 부모로 아이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 만으로도 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는 최고의 부모님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꿈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 만으로도 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는 최고의 부모님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입 엄마들의 에너지로 만든 방학돌봄교실

2021년 학기초 아직 서로의 낯섬이 채 가지지도 않은 1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서 최고의 화두는 돌봄이었다. 맞벌이 또는 복직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그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꼭 이루어내야 할 필수 사항이었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 만남을 가졌고 진짜! 여름방학 돌봄을 이루어 낼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 제법 쌀쌀해진 공기와 은은하게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그 속에서 지난 여름 돌봄을 계획했던 돌봄 TF는 그 소회를 풀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글_ 하이밍

방학돌봄 그렇게 시작하다
하이밍(이하 하)_ 잘지내셨죠?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열기를 다 전하기는 힘들겠지만 지난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소환해 볼까요?
우리 돌봄에 대한 논의가 초창기부터 시작됐잖아요. 학기초에 만나고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생강(이하 생)_ 3월에 이야기하고 4월부터 시작했

죠. 본격적으로 나디(이하 나)_ 처음에는 좀 지치부진했었다가 막판에 선생님 두 분(하늘샘, 수지샘)께서 오케이 하시고 난 뒤 급물살 탔던 것 같아요. 이번 방학 너무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여름방학 때 복직을 했잖아요. 돌봄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오는것도 큰 도움이었어요.
하_ 밥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정도입니다
하_ 복직하고는 어땠어요?
나_ 복직하면 주변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왔는지 물어보거든요. 자랑스럽게 우리 학교 방학돌봄이 있다. 우리가 이번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없었어요?'가 아니라 '아 이 학교는 없으면 만들어가면 되

는구나'라고 여기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잘 모르니까.
말레(이하 말)_ 저는 심지어 회사 이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걸 하느라고 요즘 좀 바빴습니다. 방학 때도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라고 이야기했

많은걸 느낀 돌봄의 시간
하_ 수업 시간보다 방학돌봄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규칙이 적어서 그랬는지 애들끼리 다투는 일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_ 좀 여유로워서 그랬나 봐요.
말_ 저는 사실 되게 좋았던게 애들 돌봄도 돌봄이었는데 선생님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았던게 좋았어요. 편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를 보시는지, 또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보여서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하_ 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예뻐해주

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학기 중엔 정해진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돌봄수업을 잘 따르고 좋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나_ 진짜요.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하_ 규칙에 따라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과를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자주 다투고 문제도 많이 생겼던 건 아니었을까.
나_ 애들을 이해해 주시는 부분도 감사했어요.
말_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빠듯한 예산
나_ 우리 비용문제로 좌절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원 더 모집해야 된다고
하_ 지원받으려고도 했잖아요.
나_ 그때 비아랑 갔었지.
말_ 비용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마음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밥은 못 할 줄 알았는데.
하_ 메뉴가 단순해서 좀 걱정한 부분도 있었는데 여율이 너무 너무 맛있다고 하나니까 안심됐어요.
생_ 그것도 능력이에요. 정말 딱 그 예산 안에서 거의 안 넘기고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_ 여기를 맡아 하고 계신 일 때문에 규모를 아시고 아이들하고도 수업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

했던 것 같아요.
하_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받았던 재료도 갖고 와서 해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생_ 그러니까.. 참 두 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말_ 그래서 나중에 오바도 된다. 그러니까 꼭 그 안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셨는데도 끝까지 딱 그 예산 안에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많이 남기도 했어요.
원빈엄마께서도 회계 맡아 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원빈엄마를 모셨어야 했는데 바쁘셔서 함께하지 못하게 아쉬워요.



엄마파워 막강합니다

말_ 원빈엄마랑 제가 한 첫 수업이 서유기 연극이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_ 그때 제주도에서 그 후기 올라온 거, 이거 보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중잇장 같은 집중력이라고 그랬나. (웃음)
말_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서유기 원숭이 있잖아요. 스토리 들려줘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재미있는 것만 프린트해서 갔는데 앉아있지를 않으니깐 집중이 안되는 거야. 이걸 무슨 단어예요 이걸 뭐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진행이 안 돼. 모두 주인공 하겠다.. 여자아이들은 모두 마녀하겠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아이들을 잘 모르구나. 정말 아이들과 무엇을 하기 힘들구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_ 진짜 부모돌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죠.
생_ 그때 우리가 엄청난 꿈을 꿔었어요. 일주일에 한 편씩 연극한다고 그랬어
말_ 제 가방에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 가면 아직 남아 있어요.
하_ 부모돌봄중에 느티나무도서관 갔던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앉아서 책도 잘 읽었고

생_ 나는 뭐지.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만든 하이밍 전등. 너무 좋았어. 우리 캠핑에도 가져가고 그랬어요.
나_ 기념품이 하나씩 생겼네요. 상현이는 파스넛으로 그림 그리는 걸 배워서 너무 좋았는지 집에 와서도 계속 그렸어요. 요리 활동도 엄청 좋아하고.. 애들 맨날 만든거 봉지에 싸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생_ 미술 활동도 엄청 좋아. 수박 책갈피.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말_ 너무 수고 많았어요. 웬만한 프로그램이랑 비할 정도로 진짜 너무 풍요로운 하루하루가 된 거 같아요.
생_ 계곡 물놀이도 재미있게 했었죠. 물이 적어서 못 한적도 있지만
생_ 우리 그런 것도 했잖아. 전화 문의. 사전 조사 이런 것도 했는데..
나_ 그때 생강이 엄청 잘했어요. 조사를
생_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할 거야라고 믿었던 중에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_ 나무!
나_ 그리고 몇 명은 믿었는데 잘 안됐죠.
하_ 그래도 딱 맞는 인원으로 선생님들이 포용할 수 있는 선에서 알맞게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나_ 아무튼 해냈다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생_ 진짜 기적처럼 운명처럼 뭔가 다 이렇게 딱딱딱 들어맞았어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
하_ 아쉬웠던게 뒷풀이도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하고 급하게 개학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나_ 그치. 끝까지 채워서 하다보니 여유로운 마무리 시간이 없었지.
생_ 그래서 이걸 조금 자유롭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애들 조금 더 인원을 많이 해서 자유롭게
나_ 진짜 이것도 경험이다. 우리 처음 계획을 세울땐 여러가지 프로그램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소

용이 없었지. 그래서 이게 너무 다르구나라는걸 느꼈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말_ 나는 솔직히 노력한 만큼 많이 가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은데 애도 좀 쉬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배 학부모 말도 생각이 나고
나_ 맞아. 그리고 선배 학부모들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 말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속적인 돌봄을 꿈꾸며
하_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돌봄은 이러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생_ 나는 항상 얘기하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_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방학이든 2학기든 진짜 아이를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마음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최고 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면 좀더!
생_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나_ 진짜 값진 경험을 했네요. 꿈

방학돌봄을 맡아주신 하늘샘, 수지샘, 그리고 TF팀 생강, 나디, 말레, 원빈엄마, 하이밍과 함께 지난 여름방학 부모돌봄에 함께 힘써 주신 나무, 소머즈, 고길동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수지꿈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식단을
꿈꿉니다



연대 지박령 맹달에게 듣는 21년 연대이야기

글_ 맹달

수지꿈 밥상 이야기

글_ 자미부인

사람일꾼을 하며 불량 엄마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배우는 엄마로 거듭나고 있는 자미부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선 고기 위주의 원푸드나 각종 간편식만 해주던 엄마를 두었던 우리 아이. 유기농 야채와 자극적이지 않은 맛의 학교 급식은 맛없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건 옛 이야기! '제발 급식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아이의 말에 단축수업을 해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가 원망스럽기까지 한 요즘입니다. 달마다 급식표가 나오면 그걸 달달 외우던 아이들의 재미가 하나 사라진 듯해서 너무 안타까운 코로나 시국. 솜씨 좋은 맛단지 하늘 선생님도 오늘의 메뉴를 물어보던 꼬맹이들의 재잘거림이 사라진 텅 빈 채움터가 아쉽다고 하십니다. 머지않은 미래 다시 함께 둘러앉을 점심시간을 기다리며, 맛있는 수지꿈 급식의 비밀을 공개해 봅니다. 그 비밀은 바로바로, 두레 생협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맛단지 하늘 선생님의 솜씨를 더해 아이들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랍니다. 꿈

- ▶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의 선순환을 위해 식재료의 기본은 친환경, 유기농, 우리 농산물을 이용합니다.
- ▶ 각 계절의 기후와 환경이 자연스럽게 키워내는 제철 재료를 오롯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한 달에 여러 번 구성됩니다.
- ▶ 생선류, 육류는 주2회를 기준으로 구성합니다.
- ▶ 국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도 하고 아이들이 먹는 양도 적어 주1~2회 이내로 구성 하였습니다.
- ▶ 가공식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튀기는 조리법은 지양합니다.
- ▶ 각 가정에서 보내 온 김치가 매일 기본 반찬으로 나옵니다.

연대 소위가 생긴지 4년, 나 홀로 연대 4년이 됐습니다. 4년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1년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대안교육 협의회 운영위원 자녀분들이 모두 졸업을 해서 올해부터 제가 사무국을 맡게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지꿈에도 연대소위원들이 생겼습니다. 외부 활동이 많아 동에번쩍 서에번쩍하던 일들을 당당하게 나누어 하기로 했네요. 남구 집에서 연대소위 회의라는 것도 했고, 고기동의 공원 꾸미기 팀에 소머즈가 참여하고, 동천마을 네트워크 회의에 남구가 참여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지꿈에서 메네영화제도 참여했습니다. 메네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영구터전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느껴졌어요. 여름부터 준비해서 가을쯤이면 코로나 단계가 내려가겠지 예상하며 학교에 손님 초대해 영화도 보고 음식나눔도 하려 했으나 4단계 까지 이렇게 쪽 가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줌 영화제로 전환됐지만 6학년 성민이 엄마 보리가 번역에 참여한 수지꿈학교 추천작 "모따이나이키친"을 관람 신청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수지꿈 친구들도 인터뷰에 참여해서 풍성한 영화제였다는 점. 한점 실수가 있

었지만 지역에서 수지꿈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중요한 또 한가지!!! 올해 대안교육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 진 사실을 아시나요? 시행령 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야 해 대안교육 현장과 연대에서는 가장 정신없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잘 들어간 법이 만들어져야 할텐데 법은 아직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로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에게도 교육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되어 (일부 의원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피해받는 것이 없다고 판단)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났어요. 여기에 대해 "청소년이면 누구나 교육재난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항의도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올해 10월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행령 안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꿈



수지꿈 소모임 이야기

활발히 활동 중이던 소풍, 민들레, 주책, 가야금, 아바모임, 산책, 막걸스. 각종 소모임들은 2년째 본의 아니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둔갑한 산소 호흡기를 동원해 모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자가호흡을 기대 합니다.

주책모임은 술 한잔에 책 한권. 한달에 한번 모여서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생각을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며 웃고 우는 인간들의 모임. 2021년은 온라인으로 주로 만나고 대면의 갈증을 느낀 몇 사람은 4명 인원수를 맞춰 줌에서 뛰어나와 치킨집에 목을 축이기도 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올해 **가야금 모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아이들 방과 후로 가야금이 생기고 부모들도 함께 배워 합동 공연을 꿈꾸며 열심히 연습중 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야금 공연을 하는 상상만해도 아름다운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

민들레 모임은 올해 첫 모임을 신입들과 야심차게 시작

되었으나 방역지침에 막혀 모였다 안모였다...집에서 마실분위기 내며 정감을 나누던 옛날이 그리다. 못하는 상황이 되니 민들레 모임의 소중함과 필요성이 느껴지는 한 해 였다. 위드코로나 위드민들레...

때로는 목적지 없이 발길 닿는 곳으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 걸어보고, 때로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며 걸어보고, 때로는 찰나의 순간을 누리며 걸어보는 **산책모임**은 운동화와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시원한 물병만 준비 된다면 언제든지 걸을 수 있는 준비된 모임입니다.

또 하나 새로 생긴 모임인 **막걸스**는 막걸리를 만들고 나누고 먹으며 사람사는 정을 쌓아 갑니다.

2020년, 2021년 일시정지, 2022년 재생을 꿈꾸는 풍물패 소모임 **소풍**과 **아바모임** 그리고 **막걸스!** 끈끈한 인간관계를 꿈꾸는 모임인 만큼 일상생활 복귀가 간절합니다. 아바모임은 회비만 쌓여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시기가 지나면 모두 함께 모여 그 회비를 얻은 탕진하고 싶습니다.



공 지

YouTube 수지꿈학교 NAVER 수지꿈학교

입학설명회 10월 16일 (토)

올해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입학설명회가 쉽지 않습니다. 16일 당일 낮 학교돌러보기(사전예약)를 시작으로 당일 저녁 ZOOM으로 만나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수지꿈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실꺼종~?? 많은관심 가져주세요!

우수리 장학금을 아시나요?

수지꿈에는 작은 마음을 모아 만든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름 하여, '우수리 장학금'!! 소싯적 4100원이 나온 택시비를 5000원을 내며 900원은 관촬습니다, 호기로웠던 기억 있으시죠? 그 시절의 마음을 모아 학비에도 **'잔돈은 벌어들'**의 마음을 내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후원계좌안내 _ 국민 649701-01-180370
(꿈어린이교육공동체)

해 _ 해어화 같이

돌 _ 돌보이는 미모의 미스코리아

이 _ 이름하여, 정동진!

미스코리아가 꿈이었던 아이, 해돋이의 '특별한 한해'를 마음다해 축하드리고싶어 이자리를 빌었습니다. 여전히 꿈꾸는 아이같은 해돋이. 다음'갑자'돌아올때까지 우리같이꿈꿔요! -느긋

미약한 손을 보태고 편집 후기를 쓸때면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없는 기분을 체감한다. 그럼에도 가장 좋은건, 많은 이들의 마음과 노력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그 시간속에 함께했음이 참 좋다! 밥상 잘 차려준 벌크업 그녀에게 감사와 응원을!!! -울쟁이

오랜만에 마감의 압박도 느껴보고 학교에 대해 더 알아갈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소식지 작업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마무리 할때 되니 아쉽네요~ 그리고 소머즈 아직 "감" 살아 있으세요! -좋이

많이 부족하지만 응원해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소식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기쁩니다! + _ +/글을 축약하는 게 무척 힘들던데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만세!- 하이밍

글쓰는 재주가 없어 편집일은 생각도 해본적이 없었는데 수지꿈에 들어오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많이 하게되네요.^.^ 실력있는 많은분들 옆에서 감탄만 하며 큰 도움은 못되었지만 참여하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나무

이번 작업기간엔 유독 연휴가 많은 듯합니다. 연휴에 놀러 나가자 조르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작업을 하다보면 왜이리 일들이 많은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끼니때마다 식구들은 밥달라 입이 쪽 빠져 나와 있습니다.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 아이들에게 읍소 하기도 하지만 이 녀석들은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 외곽외곽 북적 북적입니다. 그녀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럴 수록 마음만 급해져 동동동동동동거리기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타협이 쉽습니다. 전문지도 아닌데 맞춤법 좀 틀리면 어때.. 사진이 어두우면 어때.. 등..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작업은 속도가 납니다. 그건 아마 타협이 이루어 졌다기 보다는 시간에 쫓겨 달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였겠지요. 이렇게 또 소식지 작업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것이 마감의 묘미 아닐까 싶네요.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우리편, 그리고 신입 <나무, 산, 하이밍> 무한 감사해요. 앞으로도 함께 쪽~달려보아요!

'우리편'에서는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요. 겨울왕국 안나의 노래가 떠오르네요.

*Do you wanna make a sosikji?
come on out lets go and play!*

-소머즈